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 학위논문

寒岡 독서법의 유형과 현대적 의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전공

배 난 희

지도교수 김 기 호

지도교수 신 태 수

2016년 8월



석사 학위논문

寒岡 독서법의 유형과 현대적 의의

지도교수 김 기 호

지도교수 신 태 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영남대학교 대학원
독서작문학과 독서작문학전공

배 난 희



배난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2016년 8월

영남대학교 대학원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II. 독서법 형성의 사상적 배경	9
1. 한강의 생애와 학문	9
2. 한강의 사유와 독서	13
III. 독서법의 유형과 그 상호관계	23
1. 독서의 단계와 유형	24
1) 空我百念과 독서의 자세	24
2) 反覆成誦과 독서의 방법	28
3) 親書味道와 독서의 목적	37
2. 단계별 독서 유형의 체계	47
IV. 한강 독서법의 현대적 계승	53
1. 독서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성찰	56
2. 독서의 목적에 대한 성찰	68
V. 결론	75
* 참고 문헌	77
* 부록 - 한강 정구 독서법의 유형별 정리	81
* 영문초록	87



I.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조선유학사』¹⁾에서 조선예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 간략히 소개된 이래, 우리에게 유명한 예학자로만 알려져 왔던 寒岡 鄭述(1543~1620)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활동했던 학자이다. 한강은 泰山北斗와 같은 존재로 모두 사람의 추앙을 받았던 退溪 李滉과 南冥 曹植의 학통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완성시켰다.²⁾ 한강은 여타 학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학문의 폭이 넓고 깊이가 있었다. 한강의 문인들이 술회한 바에 의하면³⁾한강은 학문에 뜻을 두고는 독서와 행실과 일과 예능의 각 방면에 두루 섭렵하는 宏博한 범위에 置力한 결과 천문, 지리, 의방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였다. 그래서 『心經發揮』를 비롯해서 많은 서적을 저술 출판하였고, 340여 명이나 되는 제자를 양성함으로써 중쇠의 기운을 맞은 조선에 새로운 학풍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외직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였는데, 목민관으로서 심학과 예학을 바탕으로 하여 실천적 실용주의 노선을 굳건히 하였다.

한강에 관한 연구들은 1985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의 철학』 13호에 ‘정한강 특집호’로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한강 관련 논문은 100편에 육박하고 있다. 한강의 학문과 사상에 관해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의 결과물들이다. 기존 연구들의

- 1) 현상윤이 지은 조선 시대의 유학 사상 개설서로 1949년 민중서관에서 간행되었다.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강 정구는 제7장 「예학(禮學) 중심의 유학」에서 다루었다.
- 2) 최근 학계에서 제시된 적이 있는 이른바 ‘강안학풍’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른 것이다. 이러한 한강의 학풍은 여헌 장현광을 통해 영남 내륙으로 흘러들고 미수 허목을 통해 근기실학과 접목되면서 한국 사상사를 더욱 풍성하고 폭넓게 발전시켰다.
- 3) 선생은 자품이 무리에서 뛰어나고 영오함도 우뚝하였다. 학문에 뜻을 둔 이래로 부지런히 힘쓰고 고고하였는데, 책은 읽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행실은 힘쓰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은 익히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예능은 궁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천문과 지리와 의방에 이르러서도 모두 강습하여 통달하였으며 관혼의 의례와 상제의 제도에도 정밀하게 연구하고 강습하여 밝혔다. 천지간의 도리를 우리 선비들이 사업으로 여기지 않으면 누가 다시 담당하겠는가라고 생각하였다.(『寒岡言行錄』, 1권 「學問」)



경향을 살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강의 禮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저들로 한강 관련 연구의 주류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 『五先生禮說分類』 등을 토대로 삼아서 서인 김장생과 대비되는 남인 예학을 정립시킨 예학자로서 그의 학술사적 위치를 설명한 글들이다.⁴⁾ 다음은 예학을 기반으로 성리설을 비롯한 그의 사상 일반을 다룬 논문이다. 여러 저술 중에 산견되는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를 검토하여 그의 학문적 특징을 분석한 글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대체로 그가 퇴계학을 계승하면서도 남명학의 영향 역시 수용하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그리고 많은 논문이 한강의 문학에 관한 연구들이다. 16세기 후반 士林文學의 범주 속에서 시와 기문을 대상으로 삼아서 그의 문학사적 특징을 분석한 글들이다.⁶⁾ 또 한강의 문학에 관한 연구들과 남인 학통의 흐름 속에서 한강의 학문적 위상에 관하여 논한 학파적 관점의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들은 17세기 전반 영남학계의 재편과정 속에서 한강이 행한 정치적 역할을 다루거나, 혹은 조선 후기 嶺南과 近畿라는 상이한 지역에 거주하던 남인들의 사상적 매개자 내지 근기남인의 학문적 원류로서의 위상을 검토하였다.⁷⁾ 그 밖에 史書인 『歷代紀年』 및 地誌인 『咸州志』를 토대로 삼아 정구의 역사의식과 邑誌편찬에 관하여 논한 글들이다.⁸⁾

-
- 4) 서수생, 「寒岡 鄭述의 禮學」,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금장태,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유교사상연구』 제4·5집, 한국유교학회, 1992. 이범직, 「한강 정구의 학문과 예학」, 『道山學報』 6호, 도산학술연구원, 1997. 김현수, 「漢岡 鄭述의 禮學思想-『五先生禮說分類』를 中心으로」, 『東洋禮學』 제6집, 동양예학회, 2001. 팽립, 「寒岡 鄭述 五先生禮說 初探」, 『南冥學研究』 제1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1. 도민재, 「寒岡 鄭述의 學問과 禮學思想」, 『韓國思想과 文化』 제1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 5) 정순목, 「寒岡 鄭述의 敎學思想」,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금종우, 「寒岡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한상규, 「鄭寒岡의 敎育思想」, 『東方漢文學』 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권인호, 「南冥學派의 實學思想 研究」, 『南冥學研究論叢』 제5집, 남명학연구원, 1997. 임종진, 「寒岡 鄭述의 修養論」, 『동양예학』 제6집, 동양예학회, 2001. 전재강, 「寒岡 鄭述 心學의 敎育的 性格」, 『南冥學研究論叢』 제12집, 남명학연구원, 2003. 김상래, 「寒岡 鄭述의 도덕·교육론」, 『南冥學研究論叢』 제12집, 남명학연구원, 2003. 권진호, 「寒岡 鄭述의 程朱學 受容樣相」, 『南冥學研究』 제24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6) 김광순, 「寒岡의 生涯와 文學」,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이상필, 「寒岡의 學文性向과 文學」, 『南冥學研究』 제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1. 송준호, 「寒岡 鄭述의 詩文學에 대하여 - 거울로서의 詩」, 『東方漢文學』 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박영호, 「寒岡 鄭述의 學問精神과 文學觀」, 『東方漢文學』 제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 7) 정순우, 「聖州地域의 退溪學派 - 寒岡과 東岡을 中心으로」, 『韓國의 哲學』 30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분화 - 유성룡·정경세 학맥과 정구·장현광 학맥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제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 8) 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과 『歷代紀年』」, 『韓國學報』 12권4호, 한국학보, 1986. 김경수, 「정



주지하다시피 한강이 광범위한 분야에 치력한 학자라는 것은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내재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한강의 예학사상을 비롯하여 정치사상, 교학사상, 역사인식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하는 각론격의 논문들이 대부분이다. 각론 격의 연구가 선행되다 보니 體보다 用을 앞세운 결과가 되었다. 한강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독서이론이라든지 독서 성향, 그리고 사상의 근간 등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어져 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러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의해 필연적으로 간접체험과 다른 사람의 지혜에 의존한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얻는 가장 손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독서이다. 한 인간의 사상과 인격형성에 있어 책과의 만남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한강의 사상과 학문세계를 이해하려면 독서법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 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강이 여타 선비보다 많은 책을 읽었고, 독서이론을 허다하게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연구자들은 독서법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연구자들이 한강의 독서이론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한강의 독서이론이 지니는 비중을 看過했다는 점이다. 한강의 공부 방법을 연구한 논문들이 여러 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독서이론이 간과된 것은 연구자들이 독서를 공부방법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여 연구에 무게를 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둘째, 『寒岡集』에서 독서이론이 散發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산발적이라고 해서 한강이 독서이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朱子語類』 <讀書法> 이래로 독서이론이 하나의 갈래로 자리매김한 이상, 한강이 독서이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독서이론 가운데서 讀書法을 추출해서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고전독서에서 독서의 ‘書’는 오늘날과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독서’의 ‘서’는 경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서법이란 경전 읽기의 방법을 의미한다. 경전에는 성현의 宇宙論과 人性論과 認識論과 存在論과 價值論이 담겨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독서법은 단순한 책읽기 방법이 아니다. 삼라만상의 이치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이 바로 독서법이다.⁹⁾ 앞에서

구의 합주지 연구」,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 간행위원회, 1994.



밝힌 바처럼 한강의 심오한 사상을 알려면 한강의 독서법의 연구가 필연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한강의 독서법의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만이 한강의 문학적, 철학적 사상에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한강의 독서법에는 한강 사상의 궤적들이 집약되어 있다고 필자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강의 독서법에 대한 연구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후의 연구자들의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길잡이 구실을 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지금까지의 한강에 관련한 연구 논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금장태는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에서 한강의 예학사상은 영남예학과와 학풍을 확립하여, 사계 김장생의 기호예학과와 두 갈래의 큰 줄기를 이루면서 한국예학의 대표적 학통을 이끌었다고 했다. 한강의 예학사상이 그 시대의 다른 예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경전과 後有의 학설을 포용하고 국가의례와 가정의례의 균형 있는 접근을 시도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예학의 범위의 넓음과 규모의 방대함을 지녔다. 둘째, 기존 예설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분류체계를 통해 그의 예학이 지닌 구조적 인식의 치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경전을 통해 古禮의 원리를 인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절의 구체적 의식을 원리와 종합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례와 時宜를 조화시키고 있는, 종합으로 구성된 논리적 종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¹⁰⁾

권진호는 「한강 정구의 정주학 수용양상」에서 한강의 학문경향과 정주학의 수용양상을 조명하였다. 한강은 한훤당의 정학과 남명, 퇴계의 진실한 도를 받아들여 당대의 독특한 학문경향을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학문경향은 하학중시의 경향과 박학을 추구하여 일상생활의 기본예절을 실천하는 것, 박학

9) 신태수, 「『朱子語類』〈書法〉에 나타난 活看論」, 『韓民族語文學』 60, 韓民族語文學會, 2012, 126~127쪽.

10) 금장태,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유교사상연구』 제4·5집, 한국유교학회, 1992.



풍은 현실의 쓰임에 대비한 실용적인 성격으로 미수 허목을 통해 근기남인에 의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나갔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강이 구도의 자세로 성리학에 종사하였다면서 이론 성리학보다는 실천 성리학에 무게 중심이 있다고 하였다. 또 ‘경의협지’의 수양론을 말하면서 이후 성리학적 심학의 발전에 하나의 초석이 되었다고 하였다.¹¹⁾

이상필은 「한강 정구의 학문성향과 문학」에서 학문의 성향은 궁리거경과 치용에 있다면서 이런 점은 한강이 두 스승인 이황과 조식이 강조하던 점들을 수용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학관은 전해지는 시 105수의 작품을 통해서 유학자의 문학을 추구하고 있는 점들을 밝혔다. 한강 시의 내용이 주로 구도에의 의지와 자연과의 합일로 나타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함양과 성찰이 주된 내용이라고 했다. 또 벗들과의 사이에는 규계와 권면의 뜻이 담긴 것이 많다고 밝혔다.¹²⁾

우경섭은 「한강 정구의 학문연원과 도통적 위상」에서 한강을 17세기 남인 학통의 전제와 분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한강의 도통의식을 밝히면서 어떤 인물의 도통적 위상은 그의 행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기와 세력의 철학적·정치적 목적의식이 개입되어 창출된 이데올로기적 지위라고 했다. 그리고 한강이 당시 영남사류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이어지는 도통관에 대해 비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강은 ‘요순-공맹-정주-김굉필-이황’으로 이어지는 도통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제시하였다. 또 한강 사후에 숙종의 지원을 얻은 허목과 채제공으로 인해서 ‘이황-정주-허목-이익’으로 이어지는 근기남인 도통론으로 성립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¹³⁾

송준식은 「한강 정구의 사회교육사상」에서 한강은 일생동안 거경과 궁리를 통한 성인자기에 진력하였고,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하면서 임란 전후한 당시의 혼란한 세대로 인해 그는 다양한 종류의 예서를 저술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교육을 통한 향풍진작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했다. 그 예로 한강이 수령재직 시에는 가숙의 제도를 모방하여 사경과 서재를 설치하고, 훈장을 택정하여 일과로 가르치고 책을 읽게 하였다고 했다. 또 벼슬을 그만두고 향촌에 있을 때에도 서원교육이나 독서계,

11) 권진호, 「寒岡 鄭述의 程朱學 受容樣相」, 『南冥學研究』 제24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12) 이상필, 「寒岡의 學文性向과 文學」, 『南冥學研究』 제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1.

13) 우경섭, 「한강 정구의 학문연원과 도통적 위상」, 『역사문화논총』 4호, 역사문화연구소, 2008.



향음주례를 통하여 사회교육에 진력하였다고 설명했다.¹⁴⁾

김문식은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에서 16세기에 등장한 사림이 지방관에 임명되면서 지방 지리지를 집중적으로 편찬한 것은 그들이 학습한 수기치인의 이념을 지방사회에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낮은 지방에 부임한 지방관이 해당 지역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방통치의 기초 자료가 되는 지방 지리지의 편찬이 필요했다고 하면서 한강이 편찬한 지방 지리지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 편찬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강이 지리지의 편찬을 통해 지방사회에 유교식 예제를 보급하고, 충효를 권장하여 지방사회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밝혔다. 한강의 제자 중에는 허목과 최현이 지방지를 편찬하였다고 설명했다.¹⁵⁾

지금까지 발표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강 관련 연구의 주류적 입장은 禮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이 중에서 금장태의 논문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예학을 기반으로 성리설을 비롯한 한강의 사상 일반을 다룬 논문 중에서는 권진호의 논문을 검토하여 보았다. 다음으로 한강의 문학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이상필의 논문을 검토하였으며, 우경섭의 논문을 검토하여 한강을 17세기 남인 학통의 전제와 분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한강의 도통의식을 밝힌 것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강의 사회 실천성을 강조한 송준식의 논문과 김문식의 논문에서는 邑誌편찬을 비롯한 활동 등은 지방관으로서 수기치인의 이념을 지방사회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한 글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한강의 독서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寒岡集』은 한강 정구의 문집으로, 1841년(현종7)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회연서원에서 간행한 중간본이다. 원집15권, 속집9권,

14) 송준식, 「한강 정구의 사회교육사상」, 『남명학연구논총』 제8집, 남명학연구원, 2000.

15)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 29호, 민족문화추진회, 2006.



별집3권으로 구성된 27권 11책 목판본이다. 내제와 관심제, 표제는 모두 ‘한강선생문집’이다. 필자는 2006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발간한 『국역 한강 정구 문집』을 주 분석 자료로 삼았다. 『국역 한강 정구 문집』은 총5권으로 본집 15권, 속집 9권, 별집 3권, 그리고 연보 4권과 언행록 4권이 합집되어 있다. 본집은 대략 두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 국역의 대본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53집 소재 『寒岡集』을 저본으로 1680년(숙종 6) 미수 허목에 의해 간행된 중간본이다. 속집은 간행 후에 추각과 보각이 이루어진 후쇄본이다. 그리고 경인문화사에서 간행한 『寒岡全書』소재 한강선생연보와 한강선생언행록이 포함되어 국역되었다.

한강 정구의 문집을 국역한 『국역 한강 정구 문집』에서 한강 정구의 독서법을 추출하였다. 한강이 제시한 독서법은 모두 열일곱 개이다. 공통되는 성격이나 특징을 묶어서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독서의 유형은 세 가지다. ‘자세를 언급한 독서법’과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과 ‘목적에 언급한 독서법’이다. ‘자세를 언급한 독서법’은 세 개이고,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은 여덟 개이며, ‘목적에 언급한 독서법’은 여섯 개다. 이들 자료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속에는 독서법, 출전, 독서법의 유형 순으로 정리해 보았다.

연구는 크게 세 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한강의 생애와 학문, 한강의 사유와 독서를 살펴봄으로써 한강의 독서법 형성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독서법의 유형과 그 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강의 독서법의 특징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한강 독서법의 현대적 의의를 독서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성찰과 독서의 목적에 대한 성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한강의 독서법을 통해서 한강 사상의 궤적을 밝혀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표 1] 한강 정구 독서법의 유형

연번	독서법	출전	독서법의 유형
1	空我百念	『寒岡集』(9), 雜著, 遊伽倻山錄	자세를 언급한 독서법
2	沈潛玩索	『寒岡集』(4), 讀書, 崔백경	자세를 언급한 독서법
3	靜坐讀書	『寒岡集』(4), 書 答蔡靜應 夢硯	자세를 언급한 독서법
4	反覆成誦	『寒岡集』(4), 讀書, 崔백경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5	讀第一句 心在第一句	『寒岡集』(4), 讀書, 文緯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6	專一看書	『寒岡集』(4), 書 答李茂伯潤雨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7	熟讀精思	『寒岡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8	只要精熟	『寒岡集』(4), 讀書, 孫處訥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9	因文推理	『寒岡集』(4), 讀書, 李堉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10	必先知要	『寒岡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11	朋友講習	『寒岡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방법을 언급한 독서법
12	親書味道	『寒岡先生文集』 卷之三, 書, 答朴德凝	목적을 언급한 독서법
13	蕪叅之悅	『寒岡集』(4), 讀書, 이서	목적을 언급한 독서법
14	深造之樂	『寒岡先生文集』 卷之三, 書, 答徐行甫思遠	목적을 언급한 독서법
15	體認踐履	『寒岡集』(4), 讀書, 郭近	목적을 언급한 독서법
16	體驗躬行	『寒岡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목적을 언급한 독서법
17	體認·體察 體驗·體行	『寒岡集』(4), 讀書, 郭近	목적을 언급한 독서법



Ⅱ. 독서법 형성의 사상적 배경

조선시대는 성리학에 사상적 근거를 둔 사대부들이 지배층이 되어 이끌어간 사회였다. 그들에게 학문이란 자기를 수양하여 성인이 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그 방법으로 성현의 경전과 정주학서적을 널리 읽고 그 내용을 자신의 삶과 결부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성현의 참된 정신을 파악, 실천하는 讀書가 활용되었다. 독서는 그들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 방법이었다. 그리고 독서는 수양법이기로 했다. 이 시기에는 독서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들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한강의 독서법 형성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강의 생애와 학문

한강은 1543년(중종 38) 성주의 沙月理에서 아버지 鄭思中과 어머니 성주 이씨 사이에서 3남 1녀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 鄭應祥은 경상도 현풍이 고향인 寒暄堂 金宏弼¹⁶⁾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한강은 부친 정사중이 처가가 있는 성주로 이거하면서부터 성주에서 태어나 자리를 잡았다. 한강은 어릴 때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취가 남달랐다. 다섯 살 때 이미 신동으로 불릴 정도로 총명하였으며, 일곱 살 때 손님과 나눈 대화에서 그 비범함을 보였으며, 열 살 때에는 학문에 뜻을 두고 發憤하여 독서하였다. 이때 이미 『대학』과 『논어』의 대의에 통했다. 열두살 때에는 孔子의 화상을 벽에 걸어두고 날마다 瞻拜하며 학문의 지표로 삼았다.

한강이 대대로 벼슬한 집안의 후예라는 점과 한훤당의 외증손이라는 점 등은

16) 조선 전기의 성리학자. 김종직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우면서 특히 『소학』에 심취하여 ‘소학동자’라 자칭하였다.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평안도 회천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서 조광조를 만나 학문을 전수하였다.



그가 가문에 대한 자부심¹⁷⁾을 가지게 된 것과 함께 학문적 분위기를 복돋았다. 한강은 자질이 豪邁하고 志氣가 원대하여 장차 큰일을 이루리라는 기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또 사월리라는 마을의 분위기는 어린 시절부터 한강을 학문에 열중케 하는 외부적 요인들¹⁸⁾이 되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강은 퇴계와 남명을 찾아 배움을 청하여 양 문하를 드나들면서 한편으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게 되었다.

한강이 퇴계를 처음 만난 것은 1563년(명종 18), 그의 나이 21세 때이다. 한강은 63세의 노학자 퇴계와 사제 간의 연을 맺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한강이 퇴계를 찾아가서 ‘聖學을 하는 순서와 방법’을 배웠다. 퇴계는 한강이 한훤당으로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선한 행실을 좋아하는 유품을 이어받았음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지나친 영민함이 도리어 단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한강은 두해 뒤인 23세 때에 서신으로 이황에게 『心經』에 관해 질문을 하였다. 퇴계와의 만남 이후, 한강은 1570년(선조 3) 퇴계가 세상을 떠나기 약 7년 동안 편지를 통하여 가르침을 구하며 제자의 예를 다하였다. 한강이 제자들에게 강의한 주요 교재 중의 하나가 바로 『심경』이다.

한편 한강은 24세 되던 1566년(명종 21) 봄에 남명을 찾아뵈었다. 한강이 당시 남명이 거쳐하던 지리산 천왕봉 아래의 德山을 방문하자 남명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대가 출처와 거취를 적절하게 하므로 내 마음을 허락하노라. 사대부 군자의 큰 절개는 오직 출처에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남명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한강이 3년 전 진사에 합격한 뒤, 이듬해 봄 회시에 응시했다가 과장에 들어가지 않은 채 돌아와 공부에 전념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출처의식에 입각해 사람을 판단했던 남명의 대인관을 고려할 때, 남명이 한강을 얼마나 기쁘게 맞이하였던가를 알 수 있

17) 7세 무렵 백형 정팔이 손님을 대하는 자리에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공경의 지위에 올랐으니 나 또한 금의비를 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가 백형에게 꾸짖음을 당했다는 일화는 그의 거침없는 성품과 더불어 경화사림의 후손으로서의 남다른 자부심을 보여 준다.

18) ① 사월리는 양강으로 불리며 평생의 지기인 동강 김우옹의 거주지로, 그의 부친 칠봉 김희삼이 남명의 제자로 학문이 넉넉하였다. 또 동강의 형들도 모두 일찍부터 남명을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았다. 한강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문적 기반을 닦았다.

② 한강이 13세 때 첫 번째 스승인 덕계 오건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덕계는 정구의 종이모부이면서 남명 문인이다. 덕계가 성주교수로 부임했을 때 퇴계의 문인 금계 황준량이 성주목사로 재직 중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학문을 강론하고 연마하였으며, 덕계가 43세 때 퇴계와의 학문적 제회(際會)가 이루어 졌다. 남명의 문인으로 퇴계의 문하에 종유한 이는 덕계가 처음이었다. 덕계는 한강이 퇴계와 남명의 학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관철적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덕계가 성주교수로 있을 때 그의 문하에서 한강과 동강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는 대목이다. 이후 한강은 여러 차례 남명을 찾아 질의했고, 남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한강은 상례 일체를 관장했다.

두 스승에게 받은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한강이 퇴계에게 본받은 점은 첫째, 혼란한 시대를 당하여 宦道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전력한 점. 둘째, 窮經著書로서 古今에 博通한 점. 셋째, 東西의 分黨에 초연한 자세를 지닌 점 등이 그러하여 그는 퇴계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스승과 유사한 점이 가장 많다.¹⁹⁾ 다음으로 한강은 남명으로부터 氣節을 존중하여 ‘義理精神’을 배운 것으로 상정된다. 남명의 이러한 정신은 조선의 전형적인 선비상을 창출하여 국가가 어려울 때 절의를 다하는 의병 활동을 일으킨 동인이 되었다. 남명은 18,9세 때 주로 서울 근교의 산사에서 벗과 함께 열심히 독서를 했다. 그때 이미 經·史·子를 두루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天文, 地志, 醫方, 數學, 弓馬, 行陣, 關防, 鎭戍 등에도 뜻을 두고 궁구하여 세상에 응하고자 하였는데,²⁰⁾한강은 그의 이러한 부분을 傳承하여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한강은 남명의 義理, 名行, 出處를 본받았고, 학문하는 자세와 인격수양의 방법은 퇴계를 닮았다고 볼 수 있다.²¹⁾

주지하다시피 한강은 퇴계와 남명의 학통을 함께 계승하여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완성한 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당시 퇴계와 남명은 학문의 종장으로 서 퇴계는 영남좌도의 중심지인 安東에서, 남명은 영남우도의 중심지인 晋州에서 각기 전국의 인재를 대상으로 학문의 장을 열고 있었다. 퇴계와 남명이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약 10년 동안은²²⁾ 정구의 학문적 정체성과 교유의 범위가 형성²³⁾되던 시기라 하겠다. 한강은 퇴계로부터는 내면적 수양에 관한 감회를 많이 받았고, 남명에게서는 출처의 의리와 높은 기개를 배웠으며 또한 실재로 체험한 持敬實行의 큰 안목을 배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강은 퇴계

19) 朴英鎬, 「寒岡 鄭述의 學問精神과 文學觀」, 『東方漢文學』 第10輯, 동방한문학회, 1994, 48쪽.

20) 조식, 『남명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1, 34쪽.

21) 朴英鎬, 앞의 논문, 5쪽.

22) 한강이 28세인 1570년에 退溪를, 30세인 1572년에 南冥을, 32세인 1574년에 德溪를 잃게 되었으니 그가 스승을 통한 학문 수업도 30세 전후로 종료되었다.

23) 이 시기에 한강은 양문하의 동학인 동강과는 각별한 교분을 맺고 있었고, 퇴계의 문인인 조목, 유성룡, 김성일을 비롯하여 남명의 제자인 정인홍, 김면 등과도 깊은 친분을 쌓았다. 또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및 그 계열의 학인들과도 선교를 맺었다. 기호학과에서 영남학파의 거유를 꼽을 때 한강을 퇴계에 버금가는 완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의 정심한 학문과 사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원만한 교유관계도 적지 않게 작용했을 것이다. 남명에게만 배웠던 정인홍과는 대비된다.



과 남명의 학문을 비교하여, “이황은 덕이 두터우며 학문이 순수하여 배우는 자들이 쉽게 입문할 수 있으나, 조식은 초연히 자득하고 홀로 우뚝 서 자기의 길을 가르쳐 배우는 자들이 요체를 파악하기 어렵다.”²⁴⁾라며 말한 적이 있다. 선조의 질문에 답한 것인 만큼 그의 가장 솔직한 생각으로 사료된다. 두 스승의 장점과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강은 豪邁하고 剛毅한 기질의 소유자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아 理窟에 沈潛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실 그는 조식의 高風과 호걸적 체질에 부합되는 면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沈潛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은 剛氣로써 일을 치러야 하고 강의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은 침잠에 힘써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여 刻苦勉勵하였다. 항상 子路의 의용 있는 기상을 본받고자 노력하였다. 한편으로는 ‘정’, ‘경’자의 공부에 힘쓰으로써²⁵⁾ 심학·예학의 巨峰으로 평가받는 대유가 되었던 것이다.

한강은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추천을 통해 벼슬길에 나아간 뒤로는 말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한강은 1580년(선조 13년)에 창녕 현감직을 수락하고 관료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상당히 오래 기간을 관료직에 있는데 주로 지방수령직을 맡았다²⁶⁾. 그는 고을에 부임하면 먼저 그 고을 출신의 선현, 충신의 묘를 찾고, 서원을 건립하여 학풍을 진작시켰으며 읍지를 편찬하여 고을 사정을 분명히 파악한 뒤에 향촌사회의 교화에 힘을 쏟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한강에게 외직은 학문을 착실히 병행함과 동시에 민생현안을 직접 눈으로 파악하여 자신의 이상인 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다 헌신할 수 있으며, 古道·古禮의 회복을 그 고을에서나마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읍지의 편찬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濟世安民’의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굴지의 대명현인 퇴계와 남명을 스승으로 섬길 수 있었던 한강은 남다른 행운아라 할 수 있다. 한강은 내성적 수양을 강조하는 퇴계학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남명학의 학통을 함께 이어 받았다. 『심경발휘』 등 심학에 해당하는 일련의 저술을 남기면서 居敬窮理에 힘쓰는 한편, 博學풍에 기

24) 『寒岡集』, 「年譜」; 『국역 한강정구』, 7~8쪽.

25) 『寒岡言行錄』, 「學問」, “至於靜字敬字上工夫, 益加勉勵”

26) 1580년(선조13년) 창녕현감, 1584년(선조17년) 동북현감, 1586년(선조19년) 함안군수, 1591년(선조24년) 통천군수, 1593년(선조26년) 강릉대도호부사, 1596년(선조 29년) 강원도관찰사 등 주로 경상도·강원도 일대의 외직을 역임하였다.



반하여 수많은 읍지를 편찬하는 등 致用적 자세를 확고히 하여 양인의 학통을 자신의 학문 체계 속에 통합, 수렴하여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彬彬하게 조화를 이루어 발전적으로 성취하였다. 한강은 일생동안 수많은 서적을 저술 및 간행하였고²⁷⁾, 서재를 경영하면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한강의 학문은 17세기 후반 ‘영남남인’과 ‘근기남인’으로 계승되어 각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한강을 내적·외적은 물론이고 개인적·사회적 실천을 모두 겸비한, 즉 敬義挾持의 성리학적 전통을 가장 잘 지닌 학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강의 사유와 독서

고려 말, 혼란의 과정에서 등장한 사대부들은 새로운 사상적 대안인 성리학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유학의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은 자연의 원리를 밝히고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는 순수한 窮理의 학문으로 출발하였으나, 사회적 시련과 문화적 갈등을 겪던 현실에 직면하면서 현실을 바로 잡는다는 治人으로서의 실천성에 주목하기에 이르렀다.²⁸⁾ 성리학은 당시 새로운 대안을 원하던 사대부들에 의해 조선 사상사의 중심을 차지하였다. 관주도하의 유학 확립의 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유학 경전을 읽어야 한다.²⁹⁾는 당위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경전을 읽는 것은 학문의 핵심

27) 연보와 행장에 의거하여 그 책들을 부문별로 적어 보기로 한다. 괄호 속 숫자는 당시 한강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국역한강정구 문집』 10~11쪽.)

▲ 性理學: 『개정주자서절요총목』 (31), 『중화집설』 (56), 『성현풍절』 (59), 『심경발휘』 (61), 『수사언인록』 (62), 『염락갱장록』 (62), 『곡사동암지』 (62)

▲ 禮學: 『가례집람보주』 (31), 『오선생예설분류』 (61), 『예기상례분류』 (73), 『오복연혁도』 (75)

▲ 歷史 · 傳記 : 『역대기년』 (미상), 『고금총모』 (56), 『경현속록』 (62), 『와룡암지』 (62), 『무이지』 (62), 『고금치란제요』 (64), 『고금인물지』 (65), 『유선속록』 (65), 『일두실기』 (75), 『고금명환록』 (미상)

▲ 地方志: 『창산지』 (38), 『동복지』 (42), 『함주지』 (45), 『통천지』 (50), 『임영지』 (52), 『관동지』 (54), 『충주지』 (미완성), 『북주지』 (65)

▲ 醫學 : 『의안집방』 (58), 『광사속집』 (72)

▲ 文學 : 『고금문수』 (56), 『악천한적』 (56), 『주자시분류』 (56)

28) 최완기, 『한국의 전통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19~27쪽.



과정이었다. 그러나 경전 읽기 수준은 사서와 삼경 중에 간단한 문장만을 뽑아 외우는 과거시험의 합격을 겨냥한 訓誥 수준이었다. 조선 초 이념적 교육과 보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성리학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친 勳戚과 왕의 비리를 경험하면서 도덕적 자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修己의 방향으로 바뀌어 갔다.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기는 성리학의 심오한 발전과 학파가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림간의 분열이 생기면서 붕당정치가 시작되던 때이다. 이 시기에는 성리학의 근본 문제를 깊이 천착³⁰⁾하였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학파적 특색³¹⁾을 드러내었다. 성리학의 핵심 의제인 ‘四七理氣說’³²⁾에 대해 퇴계와 고봉간의 8년 논쟁이 있었고³³⁾, 율곡과 우계간의 6년에 걸친 왕복 논쟁³⁴⁾이 있었다. ‘사철이기설’은 당시 지성사의 화두였으며, 그로 인해 성리학의 이론적 측면이 최고조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6세기 후반 이후 주자 성리학이 조선에 뿌리를 내리면

-
- 29) 우리나라에서 독서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성리학이 들어오고 이들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신흥사대부 계층이 역사 담당 계층으로 성장해간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러서였다고 볼 수 있다. (김수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43~263쪽.)
- 30) 道學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들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出處觀과 經世觀의 형성에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주었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들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였기에 그들은 性理學的 理氣心性論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게 된다. 리기심성론은 人性을 우주적 원리에 적용하여 파악하는 것으로, 유교적 인성관을 형이상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 31) 명종 대에 소수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한 가운데 이루어진 척신정권의 상황에서 향촌을 무대로 성리학 연구에 매진하던 사람들은 도학적 규범과 질서 확립을 지향하던 대응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花潭이 현실에 초연하며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한 것이나 南冥이 그들과의 타협을 거부한 채 극한적으로 대응한 것, 退溪가 일정한 타협을 통해 개혁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 栗谷이 참여 속의 개혁을 지향한 것 등 현실 대응 자세에 있어 차별적 양상이 나타났다.(설석규, 「退溪 李滉의 理學과 정치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제2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7, 3쪽.)
- 32) 四端七情의 4단이란 맹자가 말한 것으로 인간 본성이 선함을 설명하는 예이다.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 말한다. 7정이란 禮記에 나오는 용어로서 喜怒哀懼愛惡欲등 인간의 감정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즉 4단이 도덕적인 감정이라면, 7정은 일반적인 감정(욕망까지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것)이다.
- 33) 1559년부터 성리학자 퇴계와 고봉이 8년간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四端七情에 대해 논쟁을 벌인 것으로 朱子는 '理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로서 '氣'의 활동 근거가 되는 것이고, '氣'란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로서 사물을 낳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퇴계가 '理氣互發說'을 주장하자, 고봉이 퇴계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 '理氣共發說'을 주장했다.
- 34) 퇴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우계와 그에 반대하는 율곡 사이의 논변으로 전개되었으며, 급기야는 조선 성리학자 대부분이 이 논의에 참가함으로써 '이기호발설'을 주장하는 퇴계 계열의 '주리파'와 '기발일도설'을 주장하는 율곡 계열의 '주기파'의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4단7정에 대한 논란은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냈으며, 조선 시대 성리학에 있어서 심리적 인성론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서³⁵⁾ 儒者들에게 개인적인 인격완성을 위한 修己는 治人の 필수조건으로, 讀書는 수기 단계의 학문적 수양 방법과 과정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향촌 단위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학통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학문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그러한 필요가 독서법의 체계를 만들어 내었다. 그 중심에 한강의 스승인 퇴계와 남명도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강의 문집에는 성리학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거의 없다. 그의 학문 체계에 있어서 형이상학적 理氣論이 매우 드물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³⁶⁾ 한강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조선유학사를 서술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는 이기론에 관한 言說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 그가 이기론에 대해 말을 아낀 것은, 이미 퇴계와 같은 명현이 이에 대해 거의 餘蘊이 없을 정도로 밝혀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에 대해 말을 덧붙이는 것은 贅說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³⁷⁾ 또 여기에는 이기론의 部面에 있어 ‘程朱以後, 不必著述’이라고 까지 말했던 남명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가 관념론적인 면보다 실재론적인 면에 힘썼고 리기론보다 심성론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은 분명하다.³⁸⁾

다음에 언급한 시의 제목은 ‘醉生夢死嘆’³⁹⁾이다. 이 시를 통해 그는 인간이 당초에 四端七情의 순수한 천품을 타고나 만물의 영장인 데도 대다수 사람들이 사욕에 현혹되어 그것을 지켜 따르지 못하고 값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마음

35) 조선시대 독서법이 체계화된 16세기 후반 성리학은 수용의 단계를 넘어 심화, 발전의 단계를 지나고 있었다. 퇴계는 도리와 덕행에 대한 성현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경서와 주자서를 읽는 것이 수양의 방법임을 제시하면서 『사서석의』를 저술 한 것이나, 이이가 『성학집요』에서 독서하는 방법으로 『소학』를 읽는 방법, 서서를 읽는 방법, 육경을 읽는 방법, 『사기』를 읽는 방법을 기술하면서 주자의 견해를 인용하였다는점은 그 당시 주자의 독서론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당시 많은 후학을 길러내고 있던 실천지향의 학자 성혼과 남명이 저술한 『위학지방』과 『학기유편』이 모두 주자의 학문과 독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책이라는 것을 보면 당시 주자의 독서론이 당시 학문과 독서 연구에 미쳤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36) 최영성, 「寒岡 鄭述의 學問方法和 儒學史的 位置」, 『한국철학논집』 제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997, 100쪽.

37) 이것은 퇴계 문하의嫡傳인 유성룡과 김성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38) 최영성, 앞의논문, 114쪽.

39) ‘취생몽사’는 본디 『廉洛關閩書』의 「정자군자조」에 나오는 성어로, 술에 취하거나 꿈을 꾸는 것처럼 분명한 목적이 없이 그렇그렇 세월을 보낸다는 뜻이다.



受命當年得其秀
 形肖上下人其名
 一箇靈臺主萬善
 妙用觸處知虛靈
 通神知化立人極
 踐形然後能順寧
 如何放倒一種人
 迷老醉夢終不醒
 朝晝所爲致牝亡
 可憐生意無由萌
 貪殘暴慢賊四端
 食色臭味淪七情
 良心發處私已動
 正念起時邪先生
 堪嗟十寒無一曝
 醉邪夢邪長昏暝
 三綱既淪九法斲
 偃偃百年甘龔盲
 自將皇天付畀身
 墮埴迷路空墜坑
 雖然一脈尚碩果
 生意所以根於貞
 喚醒主人豈無道
 寸膠可使黃流清
 三軍旗脚勿字上
 天君正理要明誠
 敬義夾持動靜間
 下梢遂使明德明
 依然一朝透覺關
 得見爺孃與弟兄
 却怕天日已遲暮

태어날 때 훌륭한 자질을 부여받고
 서서 걷는 동물이라 이름하여 인간인데
 온갖 선을 주재하는 靈臺라 그 마음이
 접하는 일일마다 무불통지 묘한 작용
 사물의 신묘 변화 알아서 人極 세우고
 천품 자질 구현해야 삶과 죽음 편안한 법
 그런데 별난 사람 어이 이걸 팽개치고
 취중 꿈속 늙어가 끝내 아니 깨어나나
 밝은 낮에 하는 행위 선한 마음 잘라내니
 가엾어라 선한 짝 돌아날 길이 없네
 탐욕 잔인 거침 오만 四端을 방해하고
 음식 여색 냄새 맛이 七情을 무너뜨려
 어진 마음 싹트는 곳 사심 이미 움직이고
 바른 생각 일어날 제 왜곡 먼저 이뤄지니
 추운 날이 열흘이요 따스한 날이 아예 없네
 취중인가 꿈속인가 그 언제나 깜깜해
 삼강 이미 무너지고 九法 또한 막혀어
 귀머거리 소경으로 한 백년을 갈팡질팡
 하늘이 부여해 준 귀한 몸을 가지고서
 혼미한 길 더듬다가 함정 속에 빠뜨리네
 그러나 다행이라 한 가닥 희망 있어
 正道속에 생의 뜻 뿌리를 두었거니
 이 몸 주인 불러 깨울 그 도가 없을쏘나
 한 치짜리 아교로도 황하수를 맑게 하리
 勿이라는 글자에다 삼군 깃발 세우고
 天君의 바른 이치 밝게 밝혀 되찾은 뒤
 동과 정 사이에서 敬義함께 지키면
 끝에 가선 마침내 明德이 밝아지고
 하루아침 자연스레 깨달음의 문을 뚫어
 부모님과 내 형제를 똑바로 바라보리
 하지만 서두르세 서산에 해 기울면
 외로울사 홀로 서서 먼 앞길 한탄하리⁴⁰⁾

40) 『국역 한국정구 문집』 제1권, 52쪽.



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마음이 혼란하면 취생몽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양을 행함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되찾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작품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스물여섯째 줄의 ‘誠’, 스물일곱째 줄의 ‘敬’과 ‘義’가 그것이다. 여서는 ‘성’으로 말미암은 ‘明’은 ‘誠者’를 두고 말한 것이고, ‘명’으로 말미암은 ‘성’은 ‘誠之者’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 ‘성지자’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바로 ‘경’이다. 한강은 ‘성’과 ‘경’이 가깝게는 자신, 멀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외적 확산을 의미하는 ‘의’를 결부시키면서, ‘경’과 ‘의’가 상호 의존하며 소통하는 관계로 파악했다. ‘협지’라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⁴¹⁾ 시를 통해서 짐작되듯이 한강은 일찍이 인간의 심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심경』에 관심을 갖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강은 평생 心學과 禮學의 연구에 置力하였다.

문집에서 제자들과 나눈 성리학에 대한 문답으로는 『심경』⁴²⁾에 대한 것들이 압도적이다. 한강 본인도 퇴계를 찾아가 『심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퇴계의 심학은 한강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심경발휘』의 편찬⁴³⁾으로 이어진다. 한강은 이 책을 책상 위에 놓아두고 잠시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심경발휘』의 핵심은 ‘敬’⁴⁴⁾ 한 글자에 있다.⁴⁵⁾ 퇴계가 程敏政의 『心經附註』를 더없이 존승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 책은 그의 학단에서 필수적인 교과서가 되었다. 퇴계가 「心經後論」에서 『심경부주』와 그 편자인 정민정에 대한 자신의 定見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그의 문하에서도 이와 관련된 저술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는데 한강의 『심경발휘』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⁴⁶⁾ 한강의 『심경발휘』는 스승 퇴계의 생각과 달리 정민정의 『심경부주』를 대폭 개편하여 편

41) 정우락, 「한강 정구의 사물인식방법과 세계지향」, 『한국사상과 문화』 제4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77~78쪽

42) 『심경』은 송나라 진덕수가 성현의 경전 가운데서 심성수양에 관한 내용을 가려 뽑아 심학의 큰 근본을 세운 책이다. 이후 명나라 정민정이 『심경부주』를 편찬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퇴계의 심학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심경후론」이 편찬되었다.

43) 한강의 성리학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술로 회연초당 시절에 편찬했다.

44) ‘경’의 문자적 의미는 ‘공정함, 엄숙함 또는 삼가다’ 등의 뜻으로 쓰였으나 수양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생각이나 헤아림을 중단한 상태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마음을 맑게 하는 澄心, 마음을 안정시키는 平心, 마음을 비워 고요하게 하는 虛心 등은 경에 수렴될 수 있는 용어들이다.

45) 남명학연구원,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157~180쪽.

46) 홍원식,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91~122쪽.



찬하였는데, 이것은 퇴계의 다른 제자들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특히 「敬以直內章」속 ‘경’에 대해 근 40개 항목으로 나누고서 84쪽 분량의 역대 경설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은 이론과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 통합되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론적인 것보다 실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의 유자들은 수양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하였다. 한강은 주자학적 성리학의 수양론을 계승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자를 추종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학문적 주체성의 관점에서 주자의 학문이 옳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心經附註』에 대해서도 퇴계와 견해를 달리한 것 역시 ‘학문적 주체성’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하다.⁴⁷⁾ 여기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심경발휘』에서 경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심학을 드러내 보였다.⁴⁸⁾ 이러한 그의 經說은 김굉필 이래 도학과 퇴계심학 전개의 한 발전적 모습이며, 기호학파의 趙翼과 朴世采 등에게로 적극 계승되기도 하였다.⁴⁹⁾

앞 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강은 퇴계를 방문해 『심경』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한 해 뒤인 24세에 지리산 천왕봉 아래 덕산에 거처하던 남명을 방문한다. 평소에 남명은 학자들이 『소학』에서 말하는 쇄소응대의 실천도 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고묘한 성리학적 이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지적하였다.⁵⁰⁾ 이는 사변적 이론을 추구하기보다 성현의 가르침을 깊이 체득하고 실천한 것을 강조한 남명의 학문관에 연유한 것이다. 한강도 남명으로부터 학문은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反窮體驗, 持敬實行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敬과 義가 서로 體用을 이루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하학상달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 남명의 가르침이었다.

47) 박종진, 「한강 정구의 수양론」, 『東洋禮學』 6輯, 동양예학회, 2001. 63쪽.

48) 홍원식,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96~103쪽.

49) 홍원식, 「정구의 한강학과 퇴·남학」, 『嶺南學』 제2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220쪽.

50) 남명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근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는 물 뿌리고 청소하는 범절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담론하여, 이름만 도적질하고 이로써 사람을 속이려 하다가 도리어 상처를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게 하니, 선생 같은 長老께서 이것을 꾸지람해서 말리지 않기 때문입니까?(중략) 선생 같은 분은 몸소 상등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러러 보는 이가 참으로 많을 터이니, 십분 억제하고 타이르심이 어떠할까 합니다.”라고 하여, 하학인 인사의 실천을 멀리하고 상달인 천리를 탐구하는 학자들의 학문자세를 ‘헛된 명예를 도적질하고 세상을 속이는 ‘盜名欺世’라며 호되게 비판하면서 이 같은 학문풍조에 대해 퇴계에게 바로잡아 고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남명은 하학 없이 상달이 불가능하다고 질타하면서 하학의 독서에 충실하라고 권고한다. “한갓 책만 가지고 의리를 강명하고 실제로 얻은 것이 없으면 마침내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경전이 의리를 강명하기만 하고 실생활에서 얻는 바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이치나 원리를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반면에 퇴계의 독서론은 남명의 독서론과는 차이를 보인다. 남명이 실생활에 적용하는 독서를 강조하였다면 퇴계는 천리 체인의 수양적 독서를 강조했다. 전자의 남명은 실용적 독서를, 후자의 퇴계는 형이상학적 독서를 강조한다. 독서 이유가 이토록 다른 까닭은 학문적 자세가 다른 데서 기인한다.

내성적 수양을 강조하는 퇴계학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⁵¹⁾하는 남명학의 학문관과 독서법은 한강에게 흡수되어 取擇되어진다. 두 거유인 스승은 당대에도 위대한 독서이론가였다. 퇴계와 남명의 독서법은 주자독서법이 자리를 잡은 이후였기에 같은 뿌리에서 나왔음에도 다른 갈래로 뻗어갔다. 두 스승의 독서법은 주자의 독서법을 수용하면서도 당대의 실정에 맞게 자신들의 논리를 가미했다. 퇴계가 경서와 주자서를 읽는 것이 수양의 방법임을 제시하면서 『四書釋義』를 저술한 것이나 남명이 주자의 학문과 독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學記類編』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두 스승의 독서법은 한강이 독서법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강은 두 스승의 영향으로 받고 이를 심화, 확대하여 독자적인 독서 이론을 구축하게 된다. 한강의 학문 정신에는 개인적인 인격완성을 위한 ‘修己治人’의 차원인 ‘窮理居經’의 정신과 ‘爲民德治’의 단계인 ‘應用救時’의 정신이 나타난다. 전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삼으며, 후자는 예학을 근간으로 삼는 동시에 실학적인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 한강은 일생동안 학문에 침잠하여 이치를 궁리하는데 몰두하면서 방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공부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예학’을 통한 실천도 매우 중시 하였다. ‘궁리거경’과 ‘응용구시’

51) 남명은 일생을 초야에서 보냈지만 결코 현실을 망각한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수차례의 상소문에서 척족정치의 폐해와 서리들의 횡포를 지적하였으며, 잘못된 정치현실에 대해 시종 솔직하게 과격한 언사로써 직간하였다. 당시 절대적 권한을 휘두르던 문정왕후를 ‘뒷방의 과부’에 비유해 명종을 격노케 했던 상소사건은 바로 남명의 기상을 대표하는 경우이다. 의를 존중한 남명의 이러한 현실대응 자세는 결과적으로 그의 문인들로 하여금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창의·토적의 대열에 나서게 하였기도 했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저돌적인 자세로 인해 마침내 진주의 음부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의 제자 최영경과 정인홍이 각기 기축옥사와 인조반정 때에 옥사 또는 처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는 퇴계학적인 요소와 남명학적인 요소를 취합하여 통합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주리론을 지지하는 영남학파의 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세계 완성을 위한 ‘궁리거경’에만 주로 관심을 가질 뿐 이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저술과 편찬 사업에는 무관심하였다. 그런 가운데 심성을 수양하는 공부에 진력하면서 저술 사업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 이는 퇴계 이후에는 한강이라 할 수 있다.⁵²⁾

한강이 독서법의 형성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한강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당시 잘못 된 학문 풍조에 대한 경종의 의미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한강은 서재를 운영하면서⁵³⁾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당시 문인들의 독서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강의 문집 곳곳에 당시 사람들이 독서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뿐 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제현과 예전에 배운 학문을 강마하여 늘그막에 공을 거두고 싶지만 新進 가운데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실 볼 수가 없고 지난날 상종하던 무리들도 세상사에 빠져들어 자포자기 하지 않는 자가 없네. (중략) 『近思錄』을 通讀하자는 논의는 저번에 후생 제군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모두 좋은 일이라고 하였으나, 과거시험 이전에는 어느 틈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겠는가. 마땅히 시험날까지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네만, 그렇더라도 과연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이곳에 와 함께 상종할 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생략)”⁵⁴⁾

“四書 章句는 그 가르침이 절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글을 읽는 자는 정작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씀은 진정 근세에 학문하는 자들의 큰 병폐입니다. (중략) 대체로 글을 읽는 자가 대부분 자신을 위해 그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하지 못합니다. 성현이 글을 배우는 자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뜻이 이처럼 간곡하였지만 (생략)”⁵⁵⁾

다음은 당시의 학문적 병폐를 한강이 지적한 것이다.

“중용, 대학, 논어, 맹자 등의 글을 예전에도 익히 읽고 애써 탐구하지 않은 것

52) 朴英鎬, 앞의 논문, 9쪽.

53) 한강정사(31세), 회연초당(41세), 사창서당(49세), 숙야재(61세), 무홀정사(62세), 녹곡정사(70세), 사양정사(75세)

54) 『국역 한강 정구 문집』 제5권, (이여무에게 답함 266쪽~267쪽 참고.)

55) 위의 책, 제4권, (성호원에게 답함 166~167쪽 참고.)



은 아니나 그 당시 강론한 것은 아무래도 입으로만 되뇌고 귀로만 듣는 형식적인 공부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미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크게 깨달아 마치 술에서 깨고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학문이란 오직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니 문장을 잘 기억하는 것이야 무슨 말할 가치가 있겠는가.”⁵⁶⁾

선생은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독서와 문장 짓는 것을 중시하지 않고 오직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등의 일상 예절이 법도에 맞는 것을 우선시하였다.⁵⁷⁾

입으로만 되뇌고 귀로만 듣는 형식적인 글 읽기를 口耳之功이라 한다. 입과 귀로만 하는 독서이므로 정밀하게 생각하는 독서인 精思之功과는 대가 된다. 전자의 글 읽기는 문장만 잘 기억하게 하는 것이므로 건강부회하여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외물에 얽매이는 독서인이 되게 한다. 후자의 글 읽기인 정사지공은 오직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미묘하고 심오한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독서인이 되게 한다. 형식에 치우친 당대 독서인의 병폐를 한강은 지적한다. 한강의 스승 퇴계도 당시의 科擧之學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래서 과거합격을 목표로 한 立身出世의 독서나 詞章之學으로써 자기가 생각한 所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었다.⁵⁸⁾ 요즘 사람들이 다만 글귀나 외우고 과거를 보는 것만으로 업을 삼으니 이러한 공부는 수양과 실천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아래 글은 독서와 문장을 짓는 讀書綴文보다 오직 물 뿌리고 쓸고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灑掃應對의 법도를 우선시 하여야한다는 대목이다. 물론 독서철물은 현실적이고 또 과거시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당시에 외면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강도 이 점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선비는 과거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과거시험 이외에도 옛사람의 이른바 爲己之學이란 것이 있다.”고 하여 실리의 독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인간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공부도 의미가 있다. 독서하면

56) 謂庸學語孟之書 舊亦何嘗不熟讀而力索 顧其所講說者 終不過乎口耳也 今既脫然而大悟 若醒醉而喚睡也 學惟貴於深造 何足道其強記也. 『寒岡先生文集』 卷之十一, 祭文, 祭德溪吳先生文

57) 先生教人 不以讀書綴文爲貴 惟以灑掃應對進退中規爲先. 『寒岡集』(4), 讀書, 李天封

58) 金泳, 「朝鮮時代 讀書論 研究: 退溪와 栗谷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2輯, 한국한문학회, 1989, 213쪽.



서 인간성도 길러지는 것이니 서로 상호작용 하여 누가 먼저라 따질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독서 그 자체에 대한 가치 부여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 인간의 기본 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 점을 한강은 간과하지 않았다. 한강은 비약을 꿈꾸는 제자들에게 쇄소응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초가 확립되고 나면 학문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들고 넉넉해진다. 아무리 초조해도 학문은 비약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한강은 학문의 기초를 강조한다.

주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치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하였다. 출발점이 어긋나면 그 결론은 건잡을 수 없는 곳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독서와 학문이라는 옷의 첫 단추는 가정교육에서 끼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말없는 교육인 “家庭平日不言之教”은 어떠한 공부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는 옷을 제대로 입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9)학문은 하루아침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각고와 노력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기본적 인간됨의 근본으로서의 실천은 가정 및 사회의 일상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때 기초적인 것이 확립되지 않은 학문은 공허하다.

학문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서는 필요조건이다. 학문에 뜻을 두지 않았다면 독서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학문에 뜻을 둔다고 했을 때에는 독서를 해야 한다. 특히, 전통독서에서 ‘서’는 성현⁶⁰⁾의 어록인 경전을 가리킨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본성을 실현하고, 발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방법으로 주자는 독서의 중요성을 아래의 말로 강조했다.

59) 주자의 독서론은 대학(태학)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바탕에 소학의 관심이 놓여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교육적 의도에서 주자는 스스로 『소학』을 편찬하였다. 『소학』은 반드시 독서의 공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소학』의 공부는 독서를 통한 고차원의 공부로 나아가는 기초의 기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문은 단계적 차서를 밟아 발전하는 것이다. 주자가 호광중에게 답하는 서신에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대개 옛 사람들은 소학에서 대학으로 나아갔다. 일상의 쇄소응대의 일들을 충분히 배우고 그것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어 몸과 마음의 수양이 충분히 갖추어진 연후에 비로소 대학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소학의 공부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격물치지의 공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주자의 독서론, 공부론과 관련해 볼 때, 『소학』의 공부는 기초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0) 주자에 따르면 성현은 “두루 통달하여 하나하나 지극한 곳까지 말씀 하신”분들이다. 그들의 수많은 말은 모두 ‘당연한 이치’를 말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 알지 못할까 두려워해서 책에 기록해서 남겼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모름지기 많이 글을 읽고 서로 의미를 드러내어 하나하나 지극한 곳에 이르러야 한다.” 육경 속에 담긴 성인의 글은 사사로운 의견이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참된 삶의 길을 보여 준 것이다. “육경은 성인의 손을 거쳤으니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 “독서를 통해 성현의 뜻을 보고 성현의 뜻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본다.” 는 말은 모두 이를 두고 한 말이다. - (강영안, 『주자의 독서론』, 『철학연구』 제53집, 철학연구회 학회, 2001, 7쪽.)



독서는 배우는 사람에게 두 번째 일이다.(讀書乃學者第二事)

주자는 독서가 필요한 이유가 평범한 인간의 부족함을 성현의 글을 읽는 독서의 행위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도리“인 인간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독서는 경서를 통해 공리의 요체를 깨달아 본연지성을 회복하여 도덕적 인간으로 완성한다고 믿었다. 이 믿음으로 주자는 독서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많은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리학을 正道로 존중했던 한강을 비롯한 조선의 유자들은 주자의 독서법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성리학은 사회적 규범, 질서뿐만 아니라 물아일체, 천인합일의 우주론적 가치까지 지향하고, 독서법의 이론들은 성리학적 이론의 범위 안에 놓여있다. 따라서 한강이 언급하는 독서법은 성리학적 사유를 표출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는 주자, 퇴계, 남명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독서와 그 뜻을 함께한다. 진정한 의미의 독서는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다. 글 속에 들어 있는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아 자기 수양과 실천, 깨달음과 함께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될 지식과 지혜 등의 실천의 힘을 얻는 것이 한강이 생각하는 독서를 하는 진정한 의미이다. 입신출세를 위한 독서로 수양과 실천에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는 독서, 文義와 理致를 깨닫지 못하는 독서는 진정한 독서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한강의 독서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Ⅲ. 독서법의 유형과 그 상호관계

사상적 개방성과 실천성을 갖춘 학문관을 가진 한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서의 중요성을 제자들에게 언급한다. 문답을 통해서나, 편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언급한 독서법들을 현전 자료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한강이 제시한 독서법은 모두 열아홉 개다. 이들을 공통되는 성격이나 특징을 묶어보면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된다. 독서를 함에 있어서 자세를 언급하는 유형, 방법을 언급하는 유형, 목적을 언급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본장에서는 독서법의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독서의 단계와 유형

한강이 제시하고 있는 독서법은 모두 열일곱 개다. 공통되는 성격이나 특징을 묶어보면 세 가지다. 독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세를 언급하는 유형, 방법을 언급하는 유형, 목적을 언급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필자는 한강이 언급한 독서법 중에서 각 유형의 대표되는 독서법을 유형의 명칭으로 삼으려고 한다. 자세를 언급하는 유형은 ‘空我百念型’으로, 방법을 언급하는 유형은 ‘反覆成誦型’으로, 목적을 언급하는 유형은 ‘親書味道型’으로 명칭을 정한다. ‘공아백념형’이 세 개이고, ‘반복성송형’이 여덟 개이고, ‘친서미도형’이 여섯 개이다. 여기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 독서법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空我百念과 독서의 자세

전통적 독서에서 책은 언제나 경건한 대상이다. 책 속에 성현의 말씀과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다. 여기서는 경건한 대상인 책을 읽는, 독서의 자세로 내적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다. ① 마음의 잡념 비우기 ② 마음을 가라앉히기 등의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한강이 행했던 외적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마음의 잡념 비우기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독서의 ‘서’는 경전을 의미한다. 경전에는 성현의 가르침이 담겨있다. 따라서 읽는 이의 사사로운 뜻이나 主見을 내세우지 않고 성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작가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마음에 있는 잡념을 비워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마음에 있는 잡념을 비워내는 것이란 마음을 비우고 독서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이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현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本意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空我百念 : 새벽에 일어나 앞 강당에 앉아 『근사록』 두세 판(板)을 읽었다. 구름과 산을 바라보며 온갖 잡념을 비운 채 선현이 남긴 가르침을 받들어 음미하노라니 나도 모르게 정신이 전일해지고 맛이 있었다.(晨興坐前堂。看近思錄數板。舉目雲山。空我百念。奉玩遺訓。『寒岡集』(9), 雜著, 遊伽倻山錄)

‘공아백념’은 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독서를 임함에 있어 ‘온갖 잡념을 비운 채’하라는 뜻이다. 독서는 자기 수양의 방법이자 외물을 탐구하여 내면의 완전성을 성취하는 길이다. 천부적으로 선한 인간의 마음이 독서라는 매개를 통해서 성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독서이므로 독서는 곧 성현들과의 만남들을 가지는 시간이 된다. 이런 독서에서는 온전히 그 내용에 마음을 쏟는 일이 필요하다.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일상의 잡다한 일들을 생각하는 독서는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에 임하는 첫 번째의 자세는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독서가 성현들이 발견한 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므로 독서에 임하는 첫 번째 자세로 마음가짐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마음을 가라앉히기



마음이 거칠면 글을 읽는 것도 거칠게 된다. 따라서 독서 할 때 마음이 거칠면 얻고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적으므로 마음을 가라 앉혀 평안하게 하여야 한다. 산만한 마음을 가라 앉혀서 독서에 임하라는 주문은 마음이 거칠면 성급하게 빨리만 끝내려고 하여, 글을 읽을 때 소홀이 넘겨 버림으로서 글의 진정한 義理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함에서 비롯되었다.⁶¹⁾ 독서 중에 비록 사소한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沈潛玩索 : 선생이 일찍이 배우는 이에게 가르치기를, “독서할 적에는 모름지기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음미하여 스스로 터득해야 하니, 옛사람은 이르기를, ‘천 번을 읽고 만 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하였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자들은 익숙하게 읽지 않고 그저 이렇게 대충 보아 넘기면서 만족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구두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조차 옛사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先生嘗敎學者曰 讀書須要反覆成誦 沈潛玩索 以自得焉 古人云 千周萬遍 其義自見 今之學者 却不要熟 只恁麼草草看過 便自爲足是雖 句讀之學 亦且不及於古人也. 『寒岡集』 (4), 讀書, 崔백경)

靜坐讀書 :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정하고 조용히 앉아 글을 읽는 즐거움을 누릴 그대를 생각하고 나도 그곳으로 찾아가 그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추운 날씨에 근황이 더 평안하며 아울러 성현의 뜻을 깊이 체득하고 힘써 실천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살피고 나니, 더더욱 흐뭇하였네.(想君有靜坐讀書之樂. 恨不能往同之也. 茲承辱惠書. 欣審歲寒學履加福. 且有深體而力行之意. 『寒岡集』 (4), 書 答蔡靜應 夢硯>

‘침잠완색’, ‘정좌독서’는 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이 두 독서법은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음미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정하고 조용히 앉아 글을 읽는’의 뜻으로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말이다. 성현의 말씀이 담긴 책의 절대적 권위가 인정되던 풍토에서 차분한 마음의 독서는 자세한 의리를 보게 하지만, 허황되고 거친 마음으로 독서를 하게 되면 지름길을 찾아 대충 소홀히 지나쳐 버린다. 설령 독서를 통해서 사소한 의리를 얻을 지라도 그 시비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 앉혀 독서에

61) 이금숙, 「朝鮮時代 漢文 散文에 나타난 讀書觀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57쪽.



임하는 자세는 중요한 독서법이다.

‘공아백념’, ‘침잠완색’, ‘정좌독서’의 독서법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독서를 위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들이다. ‘온갖 잡념을 비운 채,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음미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정하고 조용히 앉아 글을 읽는’ 한강이 제시한 독서를 임하는 자세이다. 한강에게 있어 독서란 교양서적 읽는 가벼운 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성현의 말씀을 대하는 전문적 독서이다. 따라서 독서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마음에 잡념을 비우고, 일상생활의 바쁜 일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정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한강의 독서법은 주자의 독서법에 맥을 같이 한다. 주자는 『주자어류』 「독서법」에 독서에 임하는 태도 특히 마음가짐에 대해 여러 곳에서 강조했다. 주자는 虛心, 專心, 平心, 恒心, 無欲立己心, 無永速效心, 無好高心, 無外務心 등이 없을 때 진정 맑은 마음으로 독서에 임하게 된다고 했다. 선입견, 자신의 견해에 대한 고집, 고원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생각, 이미 알고 있다고 자만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거울같이 맑은 마음으로 독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러운 거울은 대상을 정확하게 비추지 못한다. 독서하는 이의 마음이 맑지 않으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독서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立志한 후, 居敬의 자세를 강조하는 성리학의 기본 이념에도 충실한 것으로 한강 스스로도 독서에 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였다. 또한 이것은 경솔하게 책을 대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방법들이기도 했다. 다음의 내용들은 한강의 제자들이 독서에 임하는 한강의 외적자세를 술회한 것들이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차려입은 뒤에 가묘를 참배하였다. 물러나 서실로 들어가서는 奎안을 정돈하고 서책을 편 뒤에 성현을 마주 대하듯 경건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서 글을 강론하고 익혔다.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사색하고 문장의 내용을 완미하여 그 깊은 뜻을 탐구하면서 반드시 밤이 깊은 뒤에야 그만두었다.”⁶²⁾ - 최향경-

“선생은 매일 어김없이 첫닭이 울면 일어나 등불을 밝히고 단정히 앉아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글을 강론하며 송독하였다. 또 어떤 때는 등불을 켜지 않고 앉

62) 『국역 한강정구 문집』, 제4권, 221쪽



아 부단히 심성을 함양하면서 가끔 곁에 모시고 있는 자제에게 묻기를,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흠어진 마음을 거두는 것이 곧 학문하는 자의 첫째가는 공부이다. 하였다.”⁶³⁾-이서-

살펴 본 것처럼 한강 스스로도 독서에 임하는 몸가짐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행위를 하면서도 생각이나 마음은 다른 사물이나 행위에 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럴 경우 올바른 독서가 이루어 질수가 없다. 바른 자세는 마음의 반영이자, 마음을 좌우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책을 통한 변화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독서에서의 마음가짐은 修己와 克己復禮를 실현하는 첫 단계였다.

2) 反覆成誦과 독서의 방법

전통적 독서관은 독서가 人格陶冶의 수단이며, 교육의 본질로 생각되어 독서와 학문은 따로 구분되지 않고, 독서를 하지 않고서는 학문을 이룰 수 없어 학문은 독서의 과정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과정이 되었다. 학자들로 하여금 文·史·哲의 종합적인 學問體系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한 土臺가 되었다.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으며 실천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학문을 하며,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행위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한강이 제시한 독서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①반복 읽기, ②정밀하고 익숙하게 읽기, ③글쓴이의 입장에서 읽기, ④핵심을 짚으면 읽기, ⑤함께 읽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보도록 한다.

(1) 반복읽기

‘讀書百編義自見’⁶⁴⁾은 책을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63) 『국역 한강정구 문집』, 제4권, 221~222쪽



말로 뜻이 어려운 글도 자꾸 되풀이하여 읽으면 그 뜻을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된다는 뜻이다.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반복적 읽기가 필요한가의 물음이 던진 답변은 독서가 성현의 삶을 본받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즉, 책은 성현의 말씀과 동등한 의미를 지녔다. 그렇기에 책속의 단어에 숨은 의미를 끌어내고 그 내용을 끊임없이 나 자신의 상황에 맞추며 내면적 성찰을 하면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다.

反覆成誦 : 선생이 일찍이 배우는 이에게 가르치기를, “독서할 적에는 모름지기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고 깊이 음미하여 스스로 터득해야 하니, 옛사람은 이르기를, ‘천 번을 읽고 만 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하였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자들은 익숙하게 읽지 않고 그저 이렇게 대충 보아 넘기면서 만족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구두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조차 옛사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先生嘗教學者曰 讀書須要反覆成誦 沈潛玩索 以自得焉 古人云 千周萬遍 其義自見 今之學者 却不要熟 只恁麼草草看過 便自爲足 是雖句讀之學 亦且不及於古人也. 『寒岡集』 (4), 讀書, 최백경)

‘반복성송’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이 독서법은 글의 의미를 알게 됨에 있어서 ‘한 번 읽으면 한 번 생각하고, 한 번 생각하면 또 한 번 읽는 것을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라’는 것이다. 책 속의 내용이 자신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자신의 것으로 느껴질 만큼 반복적으로 익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동원하는 방법이 음독과 암기이다. 음독은 성현의 뜻을 잘 헤아려 그대로 받드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법이다. 옛사람들은 소리 내어 읽어야 성현의 뜻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옛 성현의 글을 소

64) 동우는 후한 말 사람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공부에 집중하여 황문시랑벼슬에 올라 현재의 글 공부상 대가 되었다.

동우의 명성이 높아지자, 많은 사람이 그에게 글을 배우겠다고 물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선뜻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마땅히 먼저 백 번을 읽어야 한다. 백 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말했다.(人有從學者, 遇不肯教而云, 必當先讀百遍, 言讀書百遍其義自見.) 『삼국지』 · 위서(魏書) 〈왕숙전(王肅傳)〉) 동우를 좇아 배우려는 자가 힘들게 사느라 책 읽을 겨를이 없다고 하자, 동우는 “세 가지 여가만 있으면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여가의 뜻을 묻자 동우가 대답했다. “겨울은 한 해의 여가이고, 밤은 하루의 여가이고, 내리는 비는 한때의 여가이다.”라고 대답했다.(從學者云, 苦渴無日. 遇言, 當以三餘. 或問三餘之意. 遇言, 冬者歲之餘, 夜者日之餘, 陰雨者時之餘也.) 후에 주자도 『훈학재규』에서 동우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책은 다만 읽는 것이 귀한 것이다.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동우도 ‘독서백편의자현’이라고 말했다.(書只貴讀. 讀多自然曉. 董遇云, 讀書百遍義自見.)



리 높여 되풀이해 읽다 보면 그 사람의 聲氣가 목구멍과 입술에 젖어들고, 글을 쓰면 그의 기운이 절로 스며든다고 생각해서 글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소리를 통해 기운을 얻는다는 인성구기의 방법이 적극 권장되었다.⁶⁵⁾ 또, 옛 성현의 글을 암기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실천 가능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운용가능한 지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말을 외우는 것과 같은 단계에 도달했을 때 체득의 순간이 오며 독서가 완성된다.⁶⁶⁾ 여기서 말하는 반복적 읽기는 단순한 반복적 읽기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깨달음과 내면화를 위해 반복읽기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암기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2)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기

‘정독’은 책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읽는 것으로 多讀이나 速讀과 달리 책을 꼼꼼하게 읽는 방법이다. 그리고 ‘속독’은 충분히 뜻을 새기면서 글을 읽는 방법이다. 독서를 통해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완전히 내면화 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해석에만 머무는 독서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순간까지 익숙하게 읽으려면 속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속독은 정독을 전제로 한다. 한강은 속독과 정독을 하기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讀第一句 心在第一句 : 선생이 독서하는 것을 한 번 엿보았더니,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첫 번째 구절에 머물러 있고 두 번째 구절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두 번째 구절에 머물러 있었다. 읽기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고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읽기를 다 마치면

65) 옛날에는 ‘독서한다’라 함은 당연히 소리 내어 읽는 것을 의미한다. 소리 내어 읽는 음독은 독자가 텍스트 속으로 몰입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나름의 의미로 내면화시키는, 이른바 독자와 저자가 혼연 일체가 되는 독서법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텍스트의 가르침, 즉 성현의 가르침을 깨달아 체득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병성, 『18세기 조선지시인의 독서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2007, 141~142쪽)

66) 조희정, 「전통적인 글읽기의 성격과 과정」, 『문학교육학』 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1998, 398~400쪽.



곧 책을 똑바로 정돈하고 꿰어 앉아 한참 동안 그 내용을 다
시 뇌인 뒤에 다른 일에 응대하였다. (竊暱先生讀書時 讀第
一句 心在第一句 讀第二句 心在第二句 讀未畢 雖有急速 未
嘗遽起 讀既畢 輒整卷危坐 沉吟良久 而後酬應他事. 『寒岡
集』(4), 讀書, 文緯)

專一看書 : 마음과 힘을 오로지 책 보는 일에 쏟고 또 대현(大賢)이 도학의 전통이
끊길까 걱정되어 지은 글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 만일 이 책
을 정성 들여 읽고 그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다면 도의 경지로 깊이 들어
가 저절로 터득하는 공부가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흐뭇하고 기쁘기 그
지없네.(專一看書. 而又致力於大賢憂道之書. 若至誠讀了而深體之. 則其
深造自得之功. 其可量耶. 不勝慰喜. 『寒岡集』(4), 書 答李茂伯潤雨)

‘독제일구 심재제일구’, ‘전일독서’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독서법은 정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첫 번째 구절
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첫 번째 구절에 머물러 있고’, ‘마음과 힘을 오로지
책 보는 일에 쏟는’ 것이다. 두 가지의 독서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集中’이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지 않고 이 책 저 책 손만 대면 마음이 산만해 질뿐이
다. 알팍한 지식들은 글을 꾸미는 재료로 활용은 되겠지만 학문의 발전에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강이 생각하는 이상적 독서인이라면 이 한 구
절을 읽으면 이 한 구를 철저히 이해하고, 이 한 장을 읽으면 이 한 장을 철
저히 이해하여야 한다. 모름지기 한 장을 철저히 이해해야 비로소 다른 장
을 볼 수 있다. 한강이 바라는 이상적인 독서는 집중해서 책을 읽는 것이다.

熟讀精思 : 지금은 다만 四書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이치를 깊이 체득하
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배우는 것이 벅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히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네. 그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 서로 진보하는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곳이 가깝지 않아 소원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생각만 간절할 뿐이네.(今
日只合先從四書 熟讀而精思之 以爲體驗躬行之助 不亦可乎 且閉戶獨學 不



如朋友講習之樂 每念君發憤追隨 可以有相發之助 而居既不邇 不能如願 徒有向風馳想而已. 『寒岡先生文集』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只要精熟 : 선생은 말씀하기를, “글을 읽을 때는 분량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정밀하고 익숙 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정밀하지 않으면 이치를 살필 수 없다.”하였다.(先生曰 讀書不要多 只要精熟 不熟則不能得其義 不精則不能察其理. 『寒岡集』(4), 讀書, 孫處訥)

‘숙독정사’, ‘지요정숙’도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精은 精讀을 熟은 熟讀이다. 정독은 살피고 또 살피며, 인식하고 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자마다에서 큰 꾀맨 틈새 곧 이해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도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글의 맥락을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모름지기 숙독해야 한다. 숙독하면 글의 이해도 저절로 정밀해지고 깊어진다. 정밀해지고 깊어진 뒤에라야 이치를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자는 숙독을 과일을 먹는 것에 비유하였다. “처음에 과일을 막 깨물면 맛을 알지 못한 채 삼키게 된다. 그러나 모름지기 잘게 씹어 부서져야 맛이 저절로 우러나고, 이것이 달거나 쓰거나 감미롭거나 맵다는 것을 알게 되니, 비로소 맛을 음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꼼꼼한 자세로 자세히 읽지 않고는 숙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서인 스스로가 자신의 역량에 맞게 분량을 정해야 하고 많은 분량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자신의 역량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독서론에서는 숙독과 정독, 이 두 가지 방법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⁶⁷⁾ 숙독은 정독을 기반으로 하며 정독은 숙독을 동반한다.

책을 읽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읽다 보면 자연히 글의 의미를 알게 된다. 독서에 있어 생각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다. 만약 읽으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또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며, 생각만 하면서 읽지 않는다면 비록 깨달았더라도 결국 위태로워 안정되지 못한다. 생각이 깊고 더 해져야 경서가 지닌 심원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사는 숙독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숙독정사는 본격적인 글 읽기의 방법이다.

67) 김사경, 「조선시대 독서론과 한문교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119쪽



주자는 독서를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여 사람들 모두가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지만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높은 곳에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독서에도 모름지기 순서가 있으니, 우선 일장 삼구에 먼저 앞의 첫 번째를 이해한 다음, 그 뒤의 뜻이 분명해지기를 기다린 연후에 전 문장을 익혀 뜻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이로 비취 독서란 단기적으로 순서를 그냥 뛰어 넘어서는 안 되며, 수준에 맞게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타고난 자질에도 구별이 있고, 사람의 처해진 상황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암송을 아주 잘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잘하는 등의 성향도 독서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글쓴이의 입장에서 읽기

책을 읽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빠지면서 읽기’이고 다른 하나는 ‘따지면서 읽기’이다. ‘빠지면서 읽기’는 독자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저자가 이끄는 대로 책 속에 들어가 책에서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독서 방식이다. 빠지면서 읽을 때는 저자는 크고 독자는 작다는 전제가 성립된다. 독자는 저자를 우러러보며 책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때로는 지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감화를 받기도 한다.⁶⁸⁾ 전통적 독서법에서의 독자는 겸손하게 저자의 말씀을 따르는 ‘빠지면서 읽기’를 선택한다. 이는 책의 내용을 내면화해야 하는 독서법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因文推理 : 선생은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大義를 탐구하고 문장을 지을 때는 세속의 진부한 작태를 따르지 않았다. 곧 문자로 인해 이치를 추리하고 문장의 내용을 실제와 부합되게 하였는데, 그 당시 동류 중에는 그에 미치는 자가 없었으므로 德溪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자주 칭찬하였다. 학당을 찾아온 사대부들이 선생의 언행과 문장을 보고 모두 후일에 반드시 大儒가 될 것임을 알았다.(先生讀書 必究大義 爲詞章 不事世俗陳腐之態 因文推理 就辭着實 一時流輩 鮮有及之 者德溪甚愛重之 亟稱道之 搢紳之來過巖堂者 見先生言行文章 皆知其他曰必爲大儒. 『寒岡集』(4), 讀書, 李埈)

68) 조동일, 『독서 · 학문 ·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11~13쪽.



‘인문추리’는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들이다. 독서인이 어떠한 관점으로 독서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자신을 기준으로 책을 보는 ‘以己觀書’와 책을 기준으로 보는 ‘以書觀書’가 그것이다. ‘인문추리’는 이서관서의 독서관점이다. 이서관서는 자신을 기준으로 책을 보기 때문에 독서인의 선지식을 책을 통해 다만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반면 이서관서는 글로써 글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독서인의 내면에 확충하는 과정이다.⁶⁹⁾ 주자도 “글로 글을 보고 사물로 사물을 보아야 하니 먼저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인문추리는 마음을 비우고 작가의 주장을 기준으로 작자의 주장을 보아야 한다는 당위명제이자 독서인의 뜻을 작자의 말에 건강 부회하는 것에 대한 경계이다.⁷⁰⁾

(4) 핵심을 짚으며 읽기

태양은 온 누리에 가득하다. 비추지 못하는 곳도 없고 기르지 못하는 생명도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나무를 태우거나 쇠를 녹이지는 못한다. 너무 흠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지원은 돋보기의 비유를 제시한다. 돋보기를 햇빛에 놓고 빛을 한 곳으로만 모으면 금방 불꽃이 일며 활활 타오르게 된다. 우주에 가득한 진리 속에서 핵심을 건져 올린다면 그것이 책 속에 있건 책 밖에 있건 진수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세상에 흠어져 있던 진리들을 나 자신에게 깨달음이라는 폭발적 변화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변증법적 사유와도 유사하다.⁷¹⁾ 핵심을 짚으며 읽기는 광대한 진리 속에서 핵심을 꿰뚫는 것이다.

必先知要 : 그대가 고급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을 처음 배우는 자의 급선무로 여겨 제가의 서적을 두루 보고 있다 하였는데, 학문을 진보시키는 공부에 이처럼 정신을 쏟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하네. 그러나 학문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핵심을 알아야 만일 무엇이 핵심인 줄을 모르고 그저 널리 배우려고만 한다면 장차 이것저것이 뒤섞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

69) 김기호, 「이서관서, 이아관서, 그리고 이서관아 독서법의 순환체계」, 『한국사상과 문화』 75권 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7쪽~35쪽.

70) 신태수, 김원준, 김기호, 김홍수, 『동양고전독서이론용어해설집』, 영남대학교출판부, 2011, 187쪽.

71) 김사경, 앞의 논문, 139쪽.



르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는가.(示諭以通 達古今 爲初學之先務 而博觀諸家之書 其留意進學之功 如是甚善 然爲學**必先知要** 如不知要 而徒博之是務 則將不幾於汎濫駁雜 而不知所以自擇者乎. 『寒岡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 吳翼承長)

‘필선지요’는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독서에서 먼저 글의 핵심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는 인식작용이다.⁷²⁾ 만일 무엇이 핵심인 줄을 모르고 그저 널리 읽기만 한다면 장차 이것저것이 뒤섞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글의 핵심을 철저하게 파악하면 글은 대나무가 쪼개지듯⁷³⁾ 쉽게 이해 될 뿐만 아니라, 뒤섞이는 혼란도 없을 것이다. 책의 양이 많아져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야말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5) 함께 읽기

책을 혼자 읽기를 하는 것과 벗들과 함께 읽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전자의 독서법은 ‘閉戶獨學’이라고 하고, 후자의 독서법은 ‘朋友講習’이라고 한다. 봉우강습에서는 폐호독학의 독서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의심을 주제로 벗들과 강론하고 논쟁하게 된다. 따라서 함께 읽기는 독서와 토론을 겸하고 있어 혼자 읽기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⁷⁴⁾ 자득을 위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독서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여럿이 한데 모여 토론을 하거나 동료나 스승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들을 이용했다. 사제관계가 엄격했던 시대에

72) 신태수, 김원준, 김기호, 김홍수, 앞의 책, 196쪽.

73) 『진서』 권34, 「두예전」에 처음 나온 말이다. 전국 대장군 두예가 오국을 치면서 ‘대나무의 처음 두세 마디를 쪼개면 그 다음 마디가 손쉽게 쪼개지듯, 초기 전선이 무너진 오국을 밀어붙이면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낱 전쟁 용어에 불과하던 ‘영인이해’가 주자의 (독서법)에 들어오면서 의미 변화가 일어난다. ‘글의 핵심을 철저하게 장악하면 그 나머지는 아주 쉬워지므로, 모름지기 핵심을 공략하라.’는 의미가 된다.

74)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영남학』 제21호, 2012, 363쪽.



함께 읽기와 같은 열린 독서를 통해서 토론의 중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朋友講習 : 지금은 다만 四書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배우는 것이 벗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히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네. 그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 서로 진보하는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곳이 가깝지 않아 소원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생각만 간절할 뿐이네.(今日只合先從四書 熟讀而精思之 以爲體驗躬行之助 不亦可乎 且閉戶獨學 不如朋友講習之樂 每念君發憤追隨 可以有相發之助 而居既不邇 不能如願 徒有向風馳想而已. 『寒岡先生文集』 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붕우강습’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이 말은 『易經』 「兌爲澤」에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두 못이 연달아 있는 것이 태이니, 군자는 이것으로써 벗을 모아 강론하고 익힌다.’에서 따온 말로 인접해 있는 두 못이 서로 물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으로, 벗이 서로 도와 학문과 덕을 닦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벗들과 붕우강습을 하면 자신의 견해만을 고집하는 잘못된 학문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한강은 東岡과는 한마을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았으며 松庵, 存齋, 玉山 등도 당대의 명사였는데 한강은 이들과 의기투합하여 서로 만나면 의리에 대해 강론하며 저녁 내내 지칠 줄을 몰랐고 밤새도록 자지 않았다고 한다.

한강의 스승인 퇴계는 ‘麗澤’을 제시하였다. 역동서원에서 함께 「심경」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 대해 유익한 점을 언급하였다. 책을 함께 읽음으로써 끝까지 읽게 되고, 전일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점이나 잘못 보았던 점을 講論하는 과정에서 깨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퇴계가 주장한 ‘함께 읽기’는 사제 관계가 엄격했던 시대에 열린 독서를 통해 토론의 중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못물과 못물이 모여 더 큰 못물을 담아내듯 벗의 모임에서 펼쳐지는 강론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質正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신뿐만 아니라 동학에게도 ‘麗澤’의 혜택이 미치게 된다.⁷⁵⁾ 자칫 폐호독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은 붕우강습도 권하고 있다. 폐호독학에서의 의문점을 가지고 붕우강습을 병행할 때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

75) 김원준, 앞의 논문, 356~357쪽.



다. 이상적인 독서는 폐호독학과 봉우강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3) 親書味道과 독서의 목적

명종 대에 土禍를 겪고 향촌사회로 돌아가야 했던 사림세력이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서원을 건립하여 학문과 교육에 주력하였다. 내적 반성을 통한 한 단계 높은 성숙이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 독서는 성리학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修養’의 과정이었다. 수양이란 무엇인가. 수양의 의미는 사대부의 최종 목표였던 克己復禮서 찾을 수 있다. 극기복례는 이기심과 욕망을 이겨내고 인간 본연의 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공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이는 또 修己治人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수양은 이러한 목표를 향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서가 수양에 초점을 맞출 때 강조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전 중심의 독서이며, 다른 하나는 마음 다스리기가 강조된 독서이다.⁷⁶⁾ 이미 그런 과정을 통과하여 인류의 모범이 된 성현들과 만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다. 그들은 성현이 남긴 말씀을 통해 내면의 성찰을 반복하며 어떻게 살아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修己의 과정 뒤에는 언제나 사회적 책임이 뒤따랐다. 개인의 깨달음은 사회로 환원되어야 하며, 변화된 개인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했었다. 여기에서는 한강이 제시한 독서의 목적의 독서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깨달음의 즐거움’과 ‘실생활에 실천’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보도록 한다.

(1) 깨달음의 즐거움

전통적 독서는 ‘수기’의 과정이다. ‘자기를 닦는다.’는 말로 풀이되는 수기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하나는 ‘자신의 무엇을 닦아야 하는가?’하는

76) 김사경, 앞의 논문, 44쪽.



질문이며 또 하나는 ‘어느 수준까지 닦아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 답에 조선의 유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성현의 수준에 이르도록 닦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을 닦아 성현이 되기까지 노력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되는 것은 ‘진실한 이치’인 것이다.⁷⁷⁾ 수기의 내용은 진리이며, 수기의 주체는 마음이고 수기의 지향점은 성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독서의 목적은 성현이 되는 것이다. 독서를 통해서 선한 행실이나 악한 대목을 만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아서 스스로 깨달아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독서를 통한 성현과의 만남을 통해 도리를 이해하는 순간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親書味道 : 우리 존형께서는 적막한 물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병을 조리하는 여가에 날마다 글을 대하고 도를 음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도의 경지로 들어간 그 깊이를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몸이 그곳에 함께 어울려 학문을 강마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흠모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想吾尊兄 棲泊寂寞之濱 疾病調護之暇 日有親書味道之樂 造詣之深 當非區區所敢測者 安得置身其傍 以資講磨之益耶 不勝歆想之至. 『寒岡先生文集』 卷之三, 書, 答朴德凝)

‘친서미도’는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글을 대하고 도리를 음미한다는 말이다. 글을 읽는 것과 도리를 음미하는 것이 둘이면서 둘이 아닌 하나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다. 도를 떠난 책 읽기는 도략적 행위일 뿐이며 책을 떠난 도의 음미는 도의 경험 부족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경서에 담겨 있는 진리의 깨침은 무한한 즐거움을 맛보게 해준다. 독서인이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글을 대하고 도를 음미하는 것이 서로 완전한 일체를 이룬 것이다.

藟豢之悅 : 선생은 일찍이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읽을 때 침식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하며 이르기를, “맹자의 말씀에 ‘도리와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육고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다.’하였는데, 나는

77) 김사경, 앞의 논문, 75~77쪽.



이 책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 선생(李先生) -퇴계 선생- 이 서울에 계실 적에 처음 이 책을 얻어 보시고는 곧 벼슬을 떠나 책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이 선생이 평소에 힘을 얻으신 것은 모두 이 책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야만 비로소 글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나의 소견으로 보면 퇴계는 주자 이후에 첫째가는 사람이고 선생은 퇴계 이후에 첫째가는 사람이다. (先生嘗讀朱子大全語類等書 至忘寢食曰 孟子云 理義之悅我心 有菡蓂之悅我口 吾於此書亦云 李先生 (退溪先生)在洛中 始得見此書 便解官載而歸 平生得力 皆在此書 如此而後 方可謂 讀書 以余觀之 退溪朱子後一人也 先生退溪後一人也. 『寒岡集』(4), 讀書, 이서)

‘추환지열’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추환’은 풀을 먹는 짐승과 곡식을 먹는 짐승, 또는 그 고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맹자』 「고자상」에 나오는 말로, ‘이와 기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 주는 것은, 마치 추환이 우리 입을 즐기도록 해 주는 것과 같다.’⁷⁸⁾에서 한강은 이기 대신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읽고 이런 표현을 하였다. 독서에서 얻는 심미적 즐거움을 이처럼 고기가 입을 즐겁게 해주는 데 비유한 것이다.

深造之樂 : 고향 선영의 아래에 집을 짓고서 글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나날이 공부가 깊이를 더해 가는 즐거움이 있는 그대가 부럽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 함께 어울려 성현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耳羨君結廬 松楸之下 讀書求志 日有深造之樂 何由合併 得窺餘緒之一二耶)< 『寒岡先生文集』 卷之三, 書, 答徐行甫思遠>

‘심조지약’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글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나날이 공부가 깊이를 더해 가는 데서 얻는 즐거움을 나타낸 말이다. 『한어대사전』에는 공부에 대해 여섯 가지로 풀이 해놓았다. 그 중에 다섯 번째로 공부를 理學者들이 말하는 功을 쌓고 行을 쌓아 心性을 보존하고 길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어사전에는 공부를 “학문을 배움, 배운 것을 익힘”⁷⁹⁾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한강이 말하는 공부는 수양과 실천의 의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으

78) ‘理氣之悅我心, 猶菡蓂之悅我口’

79)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 제3판, 민림서림, 1994, 306쪽.



로 책을 읽어야한다. 성인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였고, 그 이해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독서는 충분한 도리를 이해하려는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성현과의 만남을 통해 도리를 이해하는 순간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2) 실생활에 실천

독서가 인간 본질을 규명하고 인간으로서 추구해야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과정이 될 때 독서는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지적 성취만이 독서의 목적일 때는 삶의 변화는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독서가 실생활을 지향하면 학문의 내용을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응용이 가능하여 일생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조선시대 독서법은 성현들의 독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학문은 결국 일상의 평범하지만 올바른 도리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독서를 하기 전과 독서를 한 후의 삶이 똑같다면 그것은 진정한 독서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글자를 읽는 것에 그쳤을 뿐이지 마음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강은 진정한 독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야한 한다는 것을 독서법에서 강조한다.

體認踐履 : 선생은 성현의 글에 대해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글을 읽으면 반드시 그 내용의 도리로 보아 당연한 것과 그렇게 된 까닭을 탐구하여 알았으며 그것을 안 뒤에는 곧 마음에 체득하여 실천하는 바탕으로 삼았다.(先生於聖賢之書 無所不讀 而讀則必求所當然所以然而知之 知之則輒體認於心 而爲踐履之地. 『寒岡集』(4), 讀書, 郭近)

‘체인천리’는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독서인이 도리로써 所當然과 所以然을 안 뒤에는 곧 마음에 체득하여 실천하는 바탕으로 삼는다는 말이 체인천리이다. 체인은 온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개 책 속의 도리를 인식하는 것이며, 천리는 체행과 같은 말로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인식 수준의 체인 독서는 독서의 시작일 뿐이며, 체인



수준의 독서가 실천적 · 수양적 독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천리 곧 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인천리는 실천적 · 수양적 독서의 모델이 되는 독서법이다.⁸⁰⁾

퇴계는 나이 68세 때 자신이 평생 동안 쌓은 학문을 농축시켜 『성학십도』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선조에게 올려서 좋은 군주가 되어 만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경책하였다. 내용⁸¹⁾은 일상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모우며 계획하고, 그에 따라 종일토록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쉬운 것 같지만, 퇴계의 말처럼 실천하며 살아가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실천이 중요한 것이다. 퇴계는 성현의 경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가지 마음과 본성을 다하고 알아 잘 함양하면 된다고 본다. 함양공부는 경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퇴계에게 실천은 眞知의 실현을 위한 실천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명이 『학기유편』에서 “공리란 사물의 소이연과 그 소당연을 알고자 함일 뿐이다. 그 소이연을 아는 까닭에 그 지취가 미혹되지 않고, 그 소당연을 아는 까닭에 행동이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남명은 올바른 실천과 행동을 위해 공리를 중시하였음이 분명하다. 한강도 성현지서를 읽음에 반드시 소당연 · 소이연의 이치를 탐구하였고, 이를 알고 난 뒤에는 마음에 체인하여 천리를 바탕으로 삼았다고 한다.

體驗躬行 : 지금은 다만 四書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배우는 것이 벅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히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네. 그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 서로 진보하는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80) 신태수, 김원준, 김기호, 김홍수, 앞의 책, 191쪽.

81) 『국역 聖學十道』, 국제퇴계학회 대구 · 경북지부, 2002. 제9도 「敬齋感」참고. - 의관을 바로하고 눈매를 존엄하게 하며 잠심하여 거처하면서 상제를 대해 모시듯 하라. 발짓은 무겁게 하고 손짓은 공손하게 하며 땅을 끌라 밟되 개미 독에서 구비 돌듯이 하라. 문을 나가면 손님같이 하고 일을 받들면 제사를 드리듯 하되, 조심조심 두려워하여 감히 잠시도 안이하게 하지 말라. 성실하고 진실하여 감히 잠시도 경솔하게 하지 말라. 동쪽으로 간다고 말하고 서쪽으로 가지 말며, 남쪽으로 간다고 북쪽으로 가지 말며, 세 가지 일이라고 세 갈래로 하지 말라. 마음을 전일하게 하여 만 가지 변화를 살피라. 이것이 중사함이 경을 지킴이니, 동에나 서에나 어기지 말고 밖으로나 안으로나 서로 바르게 하라. 잠시라도 틈이 나면 만 가지 사욕이 불길 없어도 뜨거워지고 얼음이 없어도 차가 워진다. 털끝만큼이라도 틀림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 뒤바뀌고 삼강이 무너지며 구법이 퇴폐한다. 오오, 아이들아! 생각하고 조심하라. 먹을 가지고 글을 써서 경계하여 감히 마음에 아뢰노라.



곳이 가깝지 않아 소원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생각만 간절할 뿐이네.(今日只合先從四書 熟讀而精思之 以爲體驗躬行之助 不亦可乎 且閉戶獨學 不如朋友講習之樂 每念君發憤追隨 可以有相發之助 而居既不邇 不能如願 徒有向風馳想而已) <『寒岡先生文集』 卷之五書, 答吳翼承長)

‘체험궁행’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부분이다. 성현의 경전을 읽은 뒤에, 체험은 온몸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도리를 사물로 접하는 것이고, 궁행은 체험의 다른 말로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독서 사범 중 체험과 궁행을 강조한 말이다. 체인·체찰과 분리하여 체험·궁행을 별도로 말한 것은 독서인의 실천적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분은 ‘의’를 위주로 한 남명의 사회적 실천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적 실천에 앞서 한강은 ‘사서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는 것’은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한강이 체험궁행과 함께 쇄소응대, 체인천리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누구보다 실천과 수양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²⁾ 한강의 독서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말은 바로 실천일 것이다. 여기서는 남명학에서의 실천과 퇴계학에서의 실천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명학의 특징은 형이상학적인 본체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반면 존양성찰 위주의 수양론이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문관에 있어서도 『역학계몽』, 『태극도설』의 비중이 적고, 『소학』, 『대학』이 위주가 되었다.⁸³⁾ 남명은 실천을 위한 지식들의 내용들은 이미 성현에 의해 밝혀져 완성되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더 이상 형이상학적 근원을 밝히는 것은 불필요하고 느꼈다. 따라서 남명에게 실천은 ‘程朱이후로 著述은 불필요하다.’⁸⁴⁾는 입장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을 충실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천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퇴계학에서는 『소학』, 『대학』도 중시하였지만, 『역학계몽』을 밝혀서 『계몽전의』를 저술하였고 『태극도(설)』은 『성학십도』가운데 첫 번째로 배치하고 있다. 퇴계는 왕수인의 “지금 사람들이 강습하고 토론하여 참다운 지를 기다려서 바야흐로 행의 공부를 하므로, 필경 종신토록 행하지

82) 신태수, 김원준, 김기호, 김홍수, 앞의 책, 192쪽.

83) 최석기, 「남명사상의 본질과 특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27권,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1999, 46~58쪽.

84) 『南冥集』, 「南冥先生學記類編跋」, “程朱以後, 不必著書.”



못하고 또 종신토록 알지도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주장은 말학의 구이지폐에 꼭 들어맞다.”고 하였다. 또 남명의 “물 뿌리고 마당 쓰는 절도도 모르면서……”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 말은 참으로 약석처럼 유익한 말이며, 이러한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지식 내용의 존재론적 근원에 대해 아는 것을 함께 중시하였다.⁸⁵⁾ 퇴계에게 있어 실천은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⁸⁶⁾라고 하였다. 퇴계에게 있어 실천은 천명의 완성과 실현을 위한 실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퇴계의 실천은 괴이하거나 두드러지지 않았고, 일상적이었으므로 특별히 남의 이목을 끌지 않았다.⁸⁷⁾ ‘知를 위한 行’과 ‘완성된 知의 내용을 행동화’하는 의미의 行의 비중에서 퇴계의 실천은 眞知의 실현을 위한 함양적 실천을 지향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선생께서 시사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언행록의 기록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⁸⁸⁾

體認·體察·體驗·體行 : 선생이 학자에게 이르기를, “독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章句를 표절하여 문장이나 만들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성현의 경전을 읽는 데에는 그 법이 네 가지가 있는 데, 첫째는 體認이고 둘째는 體察이고 셋째는 體驗이고 넷째는 體行이다. 만일 이 네 가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글의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없는데 더구나 자기의 몸과 마음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따라한다는 옛 사람의 비난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하였다.
(先生語學者曰 所貴乎讀書者 非爲剽竊章句 以成文章取科第而已 讀聖賢經傳其法有四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其義亦無以通曉 況於吾身心有何益焉 古人鸚鵡之譏 可不懼哉. 『寒岡集』(4), 讀書, 郭近)

‘체인, 체찰, 체험, 체행’은 밑줄 친 부분에서 따온 말이다. 이것은 한강 독

85) 임수무, 『공부론』, 예문서원, 2007, 286쪽.

86) 『퇴계집』, 권41, 雜著, 「傳習錄論辯」, “不學則不知, 不勉則不能”

87) 임수무, 앞의 책, 287쪽.

88) 임수무, 앞의 책, 291쪽.(『溪山記善錄』下, 1568(선조 2) 柳雲龍과 李德弘의 대화 부분)



서법의 중요한 키워드이다. ‘체인, 체찰, 체험, 체행’은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위기지학’의 성취를 위해 제시된 것이다. 체인은 온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대개 책 속의 도리를 인식하는 것이며, 체찰은 온몸으로 성찰하는 것으로 도리의 습득을 확인하는 것이며, 체험은 온몸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도리를 사물로 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체행은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독서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진정한 인간됨, 즉 의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진리는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그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형태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한강의 독서법은 이론적 논변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천적 측면으로 향하고 있다.

한강이 심학에 기초하여 예학방면으로 학문적 관심을 집중시켜 나간 것은 내면적 수양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회적 실천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자는 정구의 예학이 퇴계의 예학⁸⁹⁾을 계승하여 집대성한 것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남명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⁹⁰⁾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강의 예학은 퇴계와 남명의 단계를 뛰어넘어 새 경지를 개척한 것이었다고 본다. 또한 그는 『주자가례』의 말절만 따지는 수준을 넘어 예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예학의 학문적 기초를 닦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예학을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확립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⁹¹⁾ 그가 생각한 예는 서로 관계하는 삶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틀이었다. 그러므로 한강에게 예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여 우리 모두가 사회의 공동선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으로서⁹²⁾ 결국 유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89) 예와 관련한 한강의 어릴 적 일화가 두 가지 전한다. 하나는 그가 9세 때에 부친상을 당하여 의젓하게 장례를 잘 집행했다는 일화이다. 다른 하나는 13세 때 주학에서 덕계에게 수업 받던 당시의 일로서, 동료 학생이 친인 한 사람을 학교에 데리고 왔는데 이를 본 한강이 그 친인을 보고 “여기는 존엄한 곳이니 너희 같은 이들이 감히 들어올 곳이 아니다.”라고 꾸짖으며 내쫓았다는 일화이다. 이 중 두 번째 일화는 한강의 초기 예학사상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예는 기본적으로 수직적 질서를 강조하므로 예론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상하귀천의 고정적인 계급관이라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강 또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퇴계는 한강에게 큰 스승이다. 퇴계는 형식과 규칙을 중시했던 정구의 예론을, “演變과 實情의 원리를 기초로 한 圓融한 예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 (홍우홍, 「寒岡의 〈上退溪李先生書〉 - 一考」, 『東洋禮學』 제6집, 동양예학회, 2001, 21쪽.)

90) 오이환, 「南冥學資料叢刊解題 緒論」, 『남명학연구논총』 제1집, 남명학연구원, 1988, 345~346쪽.

91) 금장태, 앞의 논문, 224쪽.



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그의 예학에 담겨 있는 ‘복고재제’의 정신은 뒷날 기호남인 계열의 경세치용학과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⁹²⁾

한강의 독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한강은 예를 사회의 모든 관계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방관에 나가서 독서계를 조직하는 등 교육과 교화에 관심을 가졌다. 어지러운 세상에 점점 더 어려워진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적인 방법을 찾으려는 한강에게 독서는 이론적인 것을 제공하였고 실천적인 방법의 지혜를 주었다. 한강이 저술한 책 중에 몇 권만 살펴보다더라도 한강이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나라가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 일은 군자와 소인 중에 어느 쪽이 진출하고 물러났느냐 하는 데에 달린 것으로서 한 시대 相臣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살펴보면 그 세상의 성쇠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성명이 무엇이며 무슨 벼슬에 제수되었는가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다른 사항을 자세히 언급할 겨를이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는 충신이고 누구는 간신이며 그 시대 정치 행위의 잘잘못이 어떠하였는가 등이 모두 내재되어 감출 수 없다. 그러니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어찌 이점을 깊이 거울삼아 인물을 취사선택하는 문제를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신하 본인의 거취에 관한 대의도 곁들여져 있는 것이니, 이 때문에 그 핵심 사항을 간추린 것이다. 『治亂提要』 小敍⁹⁴⁾

(前略)백성이 가난한 이유가 비록 땅의 척박함과 자연현상의 재해로 인한 것이긴 하나 부역이 많고 형벌과 정사가 혹독하여 관리들이 동서남북에서 중횡무진으로 떠돌고 못살게 하니, 설사 백성이 기름진 땅에 산다하더라도 어찌 스스로 보전할 자가 있겠는가. 풍속이 야박한 이유가 비록 오래된 나쁜 풍토로 인한 것이긴 하나 교화가 근본이 없고 예법이 일어나지 않아 오직 법령과 규제만 엄할 뿐이니, 아무리 순박하고 수수한 선비가 이 속에 어울린다 하더라도 어찌 스스로 착해질 자가 있겠는가. 더구나 공문은 날로 쌓이고 국경의 경보는 날로 급하며 백성에게 징수하는 것은 많고 상부에서의 질책이 준엄하여 수령으로 있는 자가 항상 정해진 기간 안에 재물을 출납하거나 각종 문서를 처리하는 데에 시달리느라 제 한 몸도 돌아보지 못할까 우려하는 처지에서, 어느 겨를에 백성을 살리는 방도와 선비를 배양하는 일에 유념할 자가 있겠는가. 탐욕을 부리고 간

92) 김현수, 앞의 논문, 92~93쪽.

93) 남명학연구원, 앞의 책, 105쪽.

94) 『국역 한강 정구 문집』, 3, 103쪽.



사하며 잔인하고 포악한 아전과 교묘하게 외모를 꾸며 남들의 찬사를 구하는 선비는 정말 내가 귀로 듣고 싶은 자들이 아니지만 이들도 어찌 그사이에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겠는가. 그러나 이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말할 일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 기대하는 것은, 이 고을에 수령으로 앉은 자가 앞서 말한 점들을 깊이 경계하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그 근본에 관해 한층 더 힘쓰되 백성을 편히 해주고 풍속을 좋게 할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니, 그에 따라 나타나는 보람은 내가 감히 언급할 일이 아니고 또 내가 감히 측량할 일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비록 앞서의 그 말들을 하고 싶지 않더라도 어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고을에 호적을 두고 있는 백성들도 뒤로 물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농사에 힘을 기울이고 학문에 힘쓰되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로는 나라에 내는 부세의 의무를 다하고 아래로는 몸가짐과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법도를 잃지 않은 바탕 위에서 친척과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하고 어린이와 어른 상호간의 서열을 어기지 말며 옳은 도리와 학문을 갈고 닦아 깊은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우리 한 고을의 습속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인의 도덕의 위치로 올라가 우리 임금께서 펴시는 문명의 정치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면, 이것이 곧 오늘날 내가 간곡히 기원하는 바이며 내가 한탄하는 깊은 뜻이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威州志』 서문⁹⁵⁾

정유년(1597, 선조 30) 여름에 나는 성천에 부사로 부임하여 전임수령들의 제명록을 좀 보자고 했더니, 아전이 찢어진 책 한 권을 올리며 말하기를, “지난날 우리 정 대부(鄭瓚)께서 여기저기서 자료를 수집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임진왜란 때 없어지고 이 초본만 남아 있습니다.”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임진년에는 왜적이 이 고을에 들어오지도 않았건만 이 책을 보전하지 못했던 말인가.’하고, 즉시 종이를 준비하여 베껴 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많은 일이 생기고 아전도 나의 명을 잘 따르지 않아 이제야 비로소 그 작업을 마치게 된 것이다. 나는 또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다. 이 책 속에 들어간 제명록들은 그 행실이 부정하거나 올바른 사람도 있고 정사를 행한 것이 잘했거나 잘못한 구분이 있는데, 이런 점들은 후세 사람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숙연하여 공경심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마가 찌푸러지며 역겹기 마련이다. 이는 과연 누가 이렇게 되도록 한 것인가. 뒷사람이 지금 사람을 보는 시각이 어찌 지금 사람이 옛사람을 보는 시각과 똑같지 않겠는가. 아, 정말 두려운 일이다. 『成川守臣題名案』 序文⁹⁶⁾

한강은 실천적 방법으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치의 실현이

95) 『국역 한강 정구 문집』, 3, 107~108쪽.

96) 『국역 한강 정구 문집』, 3, 114~115쪽.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실천할 개인을 양성하고 예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정구의 경세관은 예를 매개, 내지 핵심으로 하여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였고, 성리학이나 경제학 역시 이와 관련이 된다고 하겠다.⁹⁷⁾또 당시 성리학의 발달 과정에서 그 이념적 관심이 예학의 실천적 방면으로 확산되고 그에 따라 리학과 예학이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될 수 있었음을 필연의 사실이다. 그는 당시에 혼란한 양상으로 치닫던 현실 생활의 각종 예절이 일정한 기초차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아, 인간의 근원적인 질서라 할 수 있는 예를 확립하여 풍속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임·병 양란이라는 전대미유의 전란을 당하여, 무너진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국가의 기틀을 개건하며 퇴폐한 時俗을 교정하기 위한 준거로서 예학에 의한 교화체계가 요구되었음도 必至의 일이었다. 실학이 예학의 변쇄함의 반동으로 생겼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예학의 末弊만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 예학과 실학은 敎民과 安民이라는 치중점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양란 뒤에 대두한 당면 현안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들로 각기 나름의 의의가 있음은 물론이다.⁹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강의 독서법이라고 해서 특별하지는 않다. 조선중기 대부분의 성리학자들이 하던 방법으로 한강도 역시 책을 읽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었다면 한강은 독서하는 데 삶의 태도를 투영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강을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 한강은 독서와 저술의 세계로 자신을 끊임없이 내몰았다. 이런 태도는 다른 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이다.

2. 단계별 독서 유형의 체계

독서법 유형을 정리해보니, 유형 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각 유형에 배속된

97) 김무진, 「寒岡 鄭述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한국학논집』 4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229~240쪽.

98) 남명학연구원, 앞의 책, 77~116쪽.



독서법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독서법 간에 내용은 약간씩 다른지만, 배타적이지는 않다. 각기 해당 유형의 단면을 보여 주기도 하고 독서법끼리 서로 보완하는 측면도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각 유형에서 언급한 내용이나 특징들을 정리해보고, 세 유형간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A. 空我百念型

① 마음의 잡념 비우기

▲ 空我百念 (온갖 잡념을 비운 채)

② 마음을 가라앉히기

▲ 沈潛玩索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음미하며)

▲ 靜坐讀書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정하고 조용히 앉아서)

B. 反覆成誦型

① 반복 읽기

▲ 反覆成誦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고)

②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기

▲ 讀第一句 心在第一句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첫 번째 구절에 머물러 있고)

▲ 專一看書 (마음과 힘을 오로지 책 보는 일에 쏟고)

▲ 熟讀精思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 只要精熟 (정밀하고 익숙해지도록)

③ 글쓴이의 입장에서 읽기

▲ 因文推理 (문자로 인해 이치를 추리하고)

④ 핵심을 짚으면 읽기

▲ 必先知要 (먼저 핵심을 알아야)

⑤ 함께 읽기

▲ 朋友講習 (벗들과 어울려 강론하며)

C. 親書味道型



① 깨달음의 즐거움

- ▲ 親書味道 (글을 대하고 도를 음미하는 즐거움)
- ▲ 菟參之悅 (도리와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육고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 같다.)
- ▲ 深造之樂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나날이 공부가 깊이를 더해 가는 즐거움)

② 실생활에 실천

- ▲ 體認踐履 (마음에 체득하여 실천하는 바탕으로 삼고)
- ▲ 體驗躬行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고)
- ▲ 體認·體察·體驗·體行(책속의 도리를 인식하고, 도리의 습득을 확인하고, 도리를 사물에 접하고, 도리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한강이 제시한 독서법을 세 유형으로 정리하여 보니, ‘공아백념형’은 마음에 잡념을 비우고 가라 앉혀 독서에 임하라는 ‘마음공부’이다. ‘반복성송형’은 성현의 글을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고, 깊이 음미하여 스스로 터득하고,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첫 번째에 머물러 있게 하여, 마음과 힘을 오로지 책 보는 일에 쏟고,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며, 분량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정밀하게 익숙하게 하여야 하며, 문자로 인해 이치를 추리하고, 먼저 핵심을 알아야 하며, 혼자 배운 것을 벗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혀야 하는 것으로 ‘글공부’이다. ‘친서미도형’은 날마다 글을 대하고 도를 음미하는 즐거움, 도리와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육고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글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나날이 공부가 깊이를 더해 가는 깨달음의 즐거움과 마음에 체득하여 실천하는 바탕이 되고,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여 최종적으로 독서는 책 속의 도리를 인식하고, 도리의 습득을 확인하고, 도리를 사물에 접하고, 도리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몸공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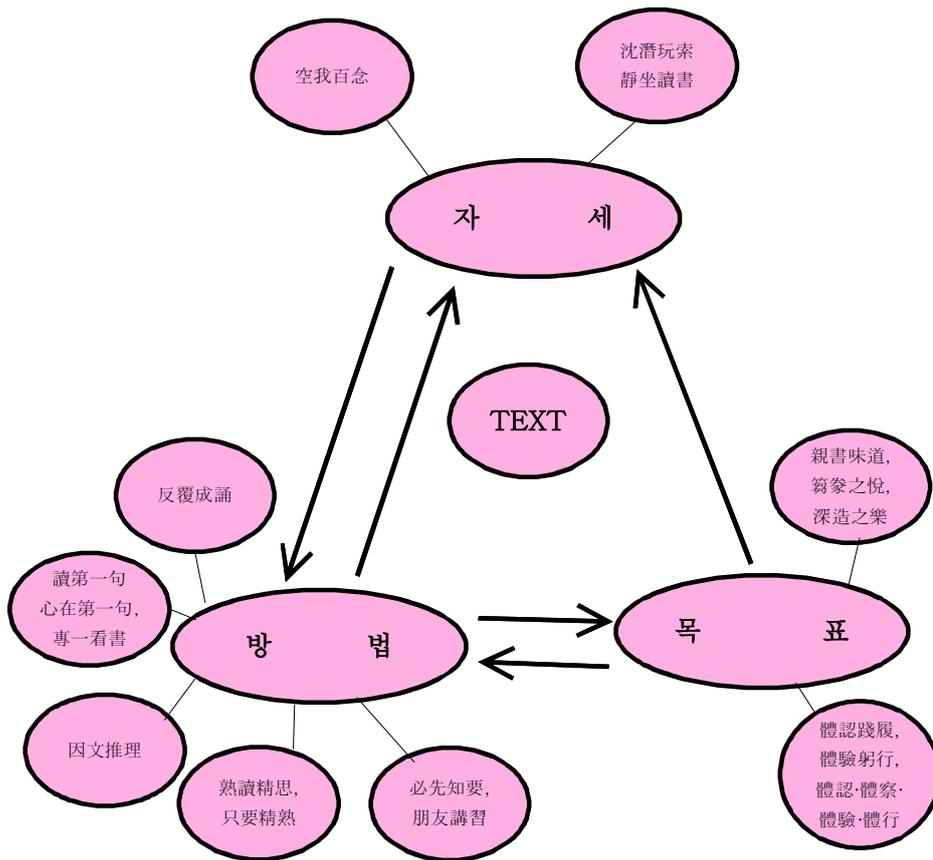
한강이 제시하는 독서법에서는 독서의 출발점으로 마음을 비워 편안하게 하면 글 자체에 집중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글에 집중해야 성현의 말을 지금 곧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다. 손, 눈, 입 그리고 암송할 때 듣는 귀 등도 동원되어 독서를 가능케 하는 조건을 만들고, 몸은 또한 글을 통해 읽은 것을 익히고 실현하게 하는 장소이다.⁹⁹⁾ 독서는 일차적으



로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 ‘글공부’이지만 글공부가 겨냥한 것은 ‘마음공부’이며 마음공부는 결국 ‘몸공부’를 떠나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때 ‘마음공부 - 글공부 - 몸공부’ 이 셋은 툇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세 유형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일차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독서의 목표를 ‘친서미도형’으로 보았을 때, 이 유형 속에 있는 ① 깨달음의 즐거움, ② 실생활에 실천 등을 이루기 위해서 ‘공아백념형’, ‘반복성송형’ 속에 있는 세부적인 독서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이들 관계를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1] 과 같다.

[그림1] 한강 독서법의 체계



99) 강영안, 앞의 논문, 7쪽.



그림으로 한강 독서법의 유형 관계를 나타내어보니 텍스트를 중심으로 자세를 나타내는 ‘공아백념형’과 방법을 나타내는 ‘반복성송형’과 목표를 나타내는 ‘친서미도형’을 삼각형으로 배치가 된다. 독서를 시작하면 ‘공아백념형’에 집중하면 ‘반복성송형’ 이룰 수 있다. 그러다가 ‘반복성송형’이 흔들리면 다시 ‘공아백념형’으로 돌아 가야한다. ‘반복성송형’이 잘 되면 ‘친서미도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친서미도형’을 이룰 수 없으면 ‘반복성송형’으로 되돌아 와서 방법을 바꿀 수 있다. ‘친서미도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아백념형’이 되면서 성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공아백념형’에 집중하다고 해서 바로 ‘친서미도형’을 이룰 수는 없다.

① 깨달음의 즐거움이 목표인 독서는 성현의 뜻을 파악해 도리를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도학주의형의 독서이라 할 수 있다.¹⁰⁰⁾ 도학주의 독서는 학문을 할 때에도 도에 뜻을 두고, 인격을 수양할 때에도 성인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주자의 독서법과 맥을 같이 하는 걸로 理法의 發現과 자기의 완성에 그 궁극적이 목표를 두었다. 이것은 성리학적 이념과 봉건적 次第秩序를 근간으로 하던 당시 조선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여 유교의 기본이념인 ‘修己 · 治人’ 가운데에 ‘수기’라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더욱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독서의 목적을 자기의 완성에 두고, 인격 수양을 위해 도움이 되는 책들을 더욱 중요시하여 권하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자신의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책읽기는 책을 통해서 성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① 마음의 잡념 비우기 ② 마음을 가라앉히기 등의 독서법이 적용된다. 두 독서법은 마음자세로 책 읽기를 준비하고, 책을 읽는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두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아백념형’은 깨달음의 즐거움을 위한 독서를 위해 필히 갖추어야 하는 독서법이다. 주지하듯이 독서가 성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음의 자세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반복성송형’에서 ① 깨달음의 즐거움이 목표인 독서에 적용되는 독서법은 ① 반복 읽기 ② 속독과 정독 ③ 글쓴이의 입장에서 읽기 ⑤ 함께 읽기 등이다. 독서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을 갖거나 독창적인 문제의 제기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오로지 뜻이 담긴 책 자체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만 집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복성송형’중 ①, ②, ③, ⑤

100) 이성희,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연구』 6호, 대전대학교 독서문화연구소, 2006, 103쪽.



의 독서법은 책을 통해 수양으로 깨달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독서법으로 활용되었다. 한강의 독서를 통한 修己를 이루는 방법은 스승인 퇴계와 주자의 독서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강의 독서법이 조선중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모습은 생활에서의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 부분은 스승인 남명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도 실천을 강조했지만, 남명의 실천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강이 ‘쇄소응대’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남명의 하학상달 독서법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는 독서의 목표를 ② ‘실생활에 실천’에 두면 ‘공아백념형’의 ①, ②은 성현의 말씀을 받아들일시 갖추어야 하는 마음 자세이므로 두 독서법이 모두 적용된다. 즉, 생활에 실천을 목표로 하는 독서를 하기위해서는 성현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독서를 하기전과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의 마음가짐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단계로 필요한 독서법이다. ‘반복성송형’에 제시되어 있는 독서법 중에서 ② ‘실생활에 실천’을 목표로 하는 독서법에 적용되는 독서법은 ① 반복 읽기 ②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기 ③ 글쓴이의 입장에서 읽기 ④ 핵심을 짚으면 읽기 ⑤ 함께 읽기 등이 적용된다. 즉, 한강이 제시한 ‘공아백념형’ 세 개와 ‘반복성송형’ 여덟 개가 모두 적용된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한강이 ‘실생활에 실천’에 제시한 독서법 중 특히, 한강의 독서사법¹⁰¹⁾이라 불리는 體認·體察·體驗·體行 독서법은 책을 통한 道理의 인식을 시작으로 道理의 습득을 확인하고 道理를 사물에 접하여 道理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한강이 제시하는 진정한 독서의 모습이다. 한강은 특이하게도 인·찰·힘·행을 체와 결부시켜 개념화했다. 체를 실천에 의한 체득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경전의 독서를 통해 얻은 진리를 실천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을 체인으로, 그 인지된 내용의 옳은 이유를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자세히 살피는 것을 체찰로, 실천을 지속함으로써 그 내용을 증험하는 것을 체험으로, 그렇게 증험된 내용을 끝까지 역행하는 것을 체행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독서사법을 현대 인지 과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體現과 그 의미가 통한다.¹⁰²⁾ 체현은 추상적인 가치를 사고와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양태로

101) 신태수, 김원준, 김기호, 김홍수, 앞의 책, 190쪽.

102) 남명학연구원, 앞의 책, 140~141쪽.



표상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강이 독서로 통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천리의 체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은 퇴계의 진지의 실현을 위한 함양적 실천 위에 남명의 완성된 知의 내용을 행동화하는 실천을 지향하는 독서법을 강조하였다. 결국 ‘공아백념형’과 ‘반복 성송형’에서 제시한 독서법인 마음의 자세와 독서의 방법들은 한강이 원하는 천리의 체현을 위한 體認 · 體察 · 體驗 · 體行 독서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IV. 한강 독서법의 현대적 계승

한강 독서법은 단순히 경전 읽기의 방법에 머물고 있지 않다. 한강 독서법에는 수양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에서의 실천을 중시하는 관점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독서를 통한 수양과 실천은 주자학의 범주에 속한다. 한강의 독서경향에는 스승인 퇴계와 남명의 성리학적 사상들이 흐르고 있다. 퇴계가 ‘경’에 치중하고, 남명이 ‘의’의 部面에서 보다 두드러졌다면 한강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침이 없이 ‘敬義夾持’에 충실했다. 독서의 규모와 범위 또한 博大하였다.¹⁰³⁾ 언뜻 보면 다른 성리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주자학의 범주 안에만 놓여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한강의 창의적 발상이 가해졌을 때는 주자학의 범주에서만 머물지 않고 벗어난다.¹⁰⁴⁾ 이는 당시의 성리학자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한강은 독서를 통해서 성현의 말씀을 내면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체득된 독서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개인들의 변화는 곧 사회의 변화

103) 한강은 성리학, 경학, 그리고 예학은 문론 천문, 지리, 산수, 병법, 의술, 풍수 등의 설에 대해 두루 섭렵하고 통했으며 심지어 이단의 서적도 섭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104) 신태수, 「남명 독서법의 특징과 그 사상사적 위상」, 『영남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15쪽.



를 촉발해 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한강에게 있어 독서는 삶과 직결해야 하며,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런 담론은 양적 독서에 몰두한 오늘날의 독서 문화를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필독 독서 목록을 정하고 보다 많은 책 읽기를 권하면서도, 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변화의 파장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¹⁰⁵⁾ 오늘날 독서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많은 양의 책을 읽었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오늘날의 독서가 삶과 직결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삶에서 실천되고 검증되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서. 질적 깊이에 주목할 수 있는 독서의 필요성을 한강의 독서법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강이 살았던 조선 중기와 오늘날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조선시대는 농경사회로 사회의 변화가 느렸다. 하지만 현대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미디어사회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었다 할 정도로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經·史·子·集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었다면 오늘날은 책을 비롯한 각종 출판물과 인터넷,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과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변화의 속도와 정보의 양에 있어 두 시대가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에 독서법에 있어서 두 시대가 같지 않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독서의 목적 가운데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격 형성과 심신 수양을 위한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 독서의 목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정서적 목적, 실용적 목적, 인격 형성과 심신 수양의 목적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독서는 정서적, 실용적 목적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인격 형성과 심신 수양의 목적이 단지 구색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중고등학교 국어과의 독서교육 목표란에서도 명시되어 있고, 독서전공계열의 학습 목표란에서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그 증거가 된다.¹⁰⁶⁾ 정규교육기관에서 독서의 목적으로 인격 형성과 심신 수양을 제시하는 데는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독서는 독서 행위 그 자체가 몸과 마음을 닦는 수양행위라고 인식하였던 조선시대나 독서가 정신의 영양을 보급하며 한 개인의 성장에 큰

105) 김은경,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의 의미와 방법」, 『교원교육』 제22권 제3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6, 131쪽.

106) 신태수, 『퇴계의 독서생활』, 지성사, 2013, 221쪽.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점에서 닮아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육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조선 말기 서양 문화가 유입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 생활양식이 단절되었으며, 서구의 생활양식이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부터이다. 서구의 문화가 우리사회에 끼친 영향은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있다. 서구 자본주의에 기초한 물질만능주의와 이로 인한 인간성부재, 그리고 전통적 가족 개념의 상실과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 등은 우리들의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德性教育의 장이었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교육모형’이라는 이름 아래 서구의 다양한 교육 방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가치 기준이 서구의 것을 좋은 모델로 여기고 표준으로 삼아왔다. 이는 우리의 고유한 心性을 간과한 선부른 모델의 도입이었음을 지적한다.¹⁰⁷⁾ 물론 서구의 이론은 매우 훌륭하고 탁월한 점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서와 문화 실정, 여건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가치관의 혼란이 가져온 부작용들이 걱정될 만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사회적·문화적 병리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사회적인 패륜 범죄와 같은 도덕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교육의 현장에서는 ‘덕성교육 부재’· ‘인간성 부족’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은 지식만 가득 주입시켜 지적능력만 키워서 명문대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한경쟁의 분위기속에서 자란다. 가정과 학교는 기본생활습관교육이나 덕성교육보다 지식위주, 경쟁 위주, 성과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며 도덕성과 건전한 인격함양이라는 전인교육¹⁰⁸⁾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성적 능력을 키워주는 지식교육만큼 정서적 능력을 길러주는 덕성교육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치우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렸다. 그만큼 예의바른 나라였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겸손·공경·배려를 미덕으로 삼아왔다. 이런 덕성교육이 앞

107) 김미라, 『어린이 교육, 공자에게 묻다』, 조울, 2013, 16~17쪽.

108) 전인교육이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마음 중에서도 지성, 덕성, 감성이 고루 개발된 사람을 뜻한다. 지덕체가 고루 이루어진 전인교육이 바로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에서 언급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해결책이 될 것이다. 德의 원래의 글자는 惠이며 곧음을 뜻하는 直과 마음을 뜻하는 心의 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뜻은 ‘곧은 마음’, ‘곧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다.¹⁰⁹⁾

21세기 교육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다운 인간, 인간다운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다.¹¹⁰⁾ 21세기 교육은 인간성 회복 및 인간관계 회복으로 더 나아가 나와 가정, 사회, 국가, 전세계화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덕성교육이다. 인간적인 따뜻한 마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이성적 능력이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다. 결국 올바른 정서에서 올바른 생각이 나오고,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며, 올바른 판단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올바른 행동으로 인해 올바른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독서를 통해서 체득한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은 앞에서 지적한 덕성교육과 인성교육이 붕괴되는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를 회복하는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한강의 독서법이 현 독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한강의 독서법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점을 정리하여 보니 모두 다섯 개다. ① 마음을 다스려 책에 정신을 집중하라 ② 책이 많도록 읽고 또 읽어라 ③작가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라 ④ 책을 읽은 후에는 토론시간을 가져라 ⑤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실천하라 등이다. 이들 독서법을 독서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성찰의 계기 조성하고 독서의 목적에 대한 성찰의 계기 조성으로 나눠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①, ②, ③, ④의 독서법은 독서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성찰에 해당되고, ⑤의 독서법은 독서의 목적에 대한 성찰에 해당된다.

1. 독서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성찰

독서는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정신작용으로 여러 지적

109)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25~26쪽.

110) 김미라, 앞의 책, 20쪽.



기능들이 어울려 통합적으로 작용한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에 의존도가 높은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독서 활동은 더욱 요구가 되기도 한다.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사회와 관련지어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가 더욱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독서법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편하고 안이한 쪽으로 독서의 형태가 이동하고 있다. 정보화는 속도와 간편함을 기본으로 요구한다. 긴 글의 의미를 숙고하기에는 개인의 능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편의 추구하고 물질만능으로 인하여 마치 ‘머리만 비대해지고 가슴은 없는’ 기형적인 인간이 양산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¹¹¹⁾ 시간이 부족하다는 명분하에 대부분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만 쫓고 있다. 이런 문제적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강의 독서법을 통해서 살펴보겠다.

1) 마음을 다스려 책에 정신을 집중하라

한강이 제시한 ‘마음의 잡념 비우기, 마음을 가라앉히기’는 독서에 임하는 자세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면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기본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독서를 취미 중 하나로 생각하니 책상 앞에 제대로 앉아 읽는 법이 없이 누워서 읽거나 편하게 기대어 앉아 책을 읽기도 한다. 이렇게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고 주위가 산만하며,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다른 곳에 신경을 빼앗기며 책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심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 즉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활이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어진다. 이 말처럼 한강의 독서법은 온전히 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 다스리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임을 표현한 말이다. 사전적 정의로 마음은 ‘지식,

111) 洪雲寧, 「栗谷 李珥의 讀書論 研究」, 韓國敎員大學敎 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73쪽.



감정, 의지 등 정신적인 기능의 바탕이 되는 것 또는 그 기능'이다. 『마음』 112)에서는 “마음은 정보를 수집·처리·보관하는 뇌의 고등 기능”이라고 정의한다. 어떤 정의건, 결국 마음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마음을 찾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중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이다.¹¹³⁾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이 자신을 좌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외물이나 타인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는 것이다. ‘마음 지키기’야말로 현대인들이 독서를 통해서 얻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타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평가 혹은 타인과의 비교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한다. 한강이 강조하는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한국의 독서교육은 서구 독서교육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서교육론』 114)에는 서른여덟 개¹¹⁵⁾의 독서지도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지도 이론 분야에서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시 정리한 것이다. 창의

112) 이영돈의 『마음』은 (예담, 2006) ‘마음’에 대한 과학적인 고찰을 시도한 다큐멘터리 <마음>을 엮은 책이다. KBS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마음>은 최초로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용적 코드로 접근해 회제가 되었다. 마음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 정신분석학, 뇌과학, 신경학 등을 이용하였으며, 마음 다스림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많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였다.

113) 김은경, 앞의 논문, 158~159쪽.

114) 박영목, 『독서교육론』, 도서출판박이정, 2013.

115) 박영목, 앞의 책, 196쪽~261쪽에 따르면, 1.도식을 통한 유추 전략 2.예측하기 안내 전략 3.기존 지식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전략 4.텍스트의 각 부분 개관하기 전략 5.등장인물의 대화 분석 전략 6.개념 도식화 전략 7.읽기에 대한 상이한 관점 활용 전략 8.도의 망 활용 전략 9.정교한 질문 전략 10. 주요 인물 분석 전략 11.개념 분석 도식 활용 전략 12.심상 안내 전략 13.역사적 변화의 기본 구조 활용 전략 14.역사적 사건의 문제 해결 관계 기억 전략 15.탐구 차트 활용 전략 16.상호작용적 읽기 안내 자료 활용 전략 17. 역할 분담 전략(Jigsaw) 18.배경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능동적 읽기 전략(K-W-L) 19.학습 결과 및 방법 쓰기 전략 20.주요 정보 요약 전략 21.수학 교과서의 주요 개념 이해 전략 22.의미 지도(Mind Map)활용 전략 23.짝과 함께 재고하기 전략(Paired Reviews) 24.관점 학습 안내 전략 25.가능한 문장 만들기 전략 26.체계적 개요 작성 전략 27.문제 상황 활용 전략 28.명제와 근거 중심의 개요 작성 전략 29.피라미드 도식 활용 전략 30.질문과 대답사이의 관계 파악 전략 31.질문 분석 전략 32. 저자에 대한 질문 전략 33. 작문 상황 활용 전략 34. 소리내어 읽기 전략 35. 협동적 의견 교환 전략 36. 과학적 현상과의 연결을 통한 개관 전략 37.의미 자질 분석 전략 38. 자기 조정 전략 등이다.



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지도 모형에 제시된 3단계 학습(독서 전, 독서, 독서 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전략들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들이다. 독서의 주요 과정을 정보 처리, 작용 기억, 지식 기저의 상호 작용으로 보고 있다. 독서교육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략들이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한강이 강조하는 독서법 중에 마음 다스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부분들은 빠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전통독서법에서 진행되었던 ‘독서 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서양의 독서법들이 보편화가 되면서 계승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교육은 전통의 사상과 문화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이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는 문화적 총체이며, 모든 교육제도는 그 문화권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이란 곧 ‘나의 자기동일성(정체성)’의 문제이다. 이는 그 전통이 없었다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사유구조는 언어와 전통 속에서 자란 것이기에 내 정신은 곧 나의 전통과 직결된다. 따라서 전통과의 단절은 사실상 교육의 포기를 의미한다.

우리의 현행 교육은 문화와 전통에 기초한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무차별하게 수용한 것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기인한다. 경제 지상주의와 미국식 문물의 무조건적인 선호 일변도로 치달았다. 사회제도, 가치관, 교육제도 등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식교육을 인성교육보다 우선시했다. 서구의 기술을 빨리 습득하려는 생각에 ‘배경이 되는 정신적 교육’을 소홀히 취급했다. 결국 근대화, 경제개발, 기술 최우선의 사고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황폐하게 만들었다. 전통을 계승하지도 못하고 서구의 이상적 목표를 따라하다 보니 우리는 자기동일성을 확립하는 교육에 실패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문화로부터 소외당한 채 자라고 있다. 결국 한국인으로서의 자기동일성을 지니지 못한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 전통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은 쓸데없이 고리타분한 과거를 반복하고 복원하려는 회고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절박한 물음에 대한 해명의 노력이며, 자기동일성에 기초한 인격형성을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다.¹¹⁶⁾

한강의 독서법에서 심리적 지재를 중시했다는 것은, 독서가 단순한 ‘글 읽

116) 한상우, 『우리 것으로 철학하기』, 현암사, 2003, 291~303쪽.



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양 독서법에서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서양의 책읽기가 얇의 충족과 사고의 확산이 목적이라면, 전통사회에서의 독서는 생활 그 자체이다. 책읽기에 집중하는 몰입은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을 온전히 수용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독서는 실천으로 연결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강을 비롯한 고전 독서법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기제인 '공아백념'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의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어라

반복읽기와 정독과 속독 등의 집중하는 읽기는 글의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며 읽는 방법들이다. 그 반대 지점에 속독과 다독, 훑어 읽기 등이 있다. 속독과, 다독, 훑어 읽기 등은 모두 현대의 정보미디어 사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읽기 방식들이다. 현대인들에게 독서는 좋은 삶을 위한 읽기이다. 따라서 읽기는 개인에 따라 다양해졌다. 개인의 행복한 여가를 위해 연애소설을 읽는 것, 여행 안내서를 읽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것,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담은 책을 고르려고 관련된 서평을 읽는 것, 신문에서 주요 뉴스를 훑어 읽는 것 또한 현대인의 삶을 위한 중요한 읽기가 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강의 독서법 중 반복읽기, 정독, 속독이 현대인에게 주는 중요한 함의는 바로 글과 자신을 反芻하려는 태도이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윤리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글 읽기에서는 글의 共鳴을 삶에 투영하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태도이다.¹¹⁷⁾

반복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이 있고, 문제를 천재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신분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도 한다.¹¹⁸⁾ 조선 중기의

117) 김은하,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 학교도서관저널, 2014, 101쪽~102쪽.



시인인 김득신은 어릴 때 둔재로 유명하다. 김득신에게는 독서록이 있었는데, 천 번을 읽지 않은 것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기록에 의하면 사마천의 『사기』 중 「백이전」 같은 것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한다. 그 결과 미련하고 둔한 김득신이었지만 독서를 반복함으로써 글을 암송하고 시를 쓰는 재주를 갖추게 되어 후세에까지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또한 사서오경을 100번씩 읽었다고 한다. 특히 『대학』을 수백 번이나 읽었다. 책 속에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로 세우고 집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뒷받침했던 것은 방대한 독서력과 반복 읽기의 힘인 것이다. 공자 또한 반복적인 읽기로 유명하다. 韋編三絶은 공자가 『주역』을 반복 읽기 하여 엮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고 하여 생긴 고사 성어이다.

‘다독’과 ‘정독’중에 어떤 방법으로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의 답변은 정답이 없다. 독서목적과 상황에 따라 또는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의도와 연계하여 다양한 독서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아이를 둘러싼 환경은 특정한 독서 형태를 강요한다. 학교에서 다독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도전 책 읽기 100권’, ‘주1회 독서록 작성하기’ 등 책을 읽고 읽은 책의 수만큼 교실 뒤편에 스티커를 붙이고, 도서관에서 도서를 많이 대출한 아이들에게 독서왕이라며 상장을 준다. 또 전집을 판매하는 출판사나 책읽기 커뮤니티 등에서도 ‘1만권 읽기’ 등을 내세워 다독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1년에 100권을 읽은 학생이 그 중 몇 권이나 기억을 할 수 있을까? 필자가 독서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도서명을 적어보라하면 아이들은 다섯 권 채우기도 힘들어 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 때문이다. 우리의 뇌는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을 망각하는데¹¹⁸⁾ 뇌의 망각을 막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반복 읽기와 책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용의 일정부분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인 방법이다.

학교에서의 다독 분위기는 제한된 시간에 책을 많이 읽는 것에 가치를 두

118) 권영식, 『21세기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다산의 독서전략』, 글라이더, 2012, 123~126쪽.

119) 실험심리학의 선구자였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인간의 망각실험을 했는데 이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한다. 그는 에빙하우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입력 후 10분 뒤부터 망각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면 50%가 망각되고, 하루가 지나면 70% 이상, 한 달이 지나면 80% 이상이 자연적으로 망각된다고 하였다.



게 되므로 아이들은 어떤 책이든 후딱 읽어버리는 속독에 익숙해진다. 당연히 책읽기의 질은 떨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맞는 책읽기보다는 쉽고 얇은 책만 골라서 읽게 됨으로 독서 수준을 높일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독서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읽었는지가 되어야 한다. 대중 여러 권을 읽는 습관보다는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읽는 정독이 권장되어야 한다. 다독의 경험만으로는 사고력과 표현력의 확장이 힘들다. 사고력과 표현력의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정독이 항상 답은 아니다. 정독이 좋은 독서의 표본이기는 하지만 독서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내용이 가벼운 책은 속도감 있게 읽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책을 정독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는 책 읽기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기다. 책을 읽는 중에,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책 읽기는 실패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독은 아닐 것이다. 많은 양의 책을 읽으려면 생각하기는 반쯤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무적으로 많은 책을 읽어야 하는 경우라면 생각하기는커녕 아마 한 권을 읽고 나서 곧바로 다른 책을 집어 들어야 할 것이다. 책읽기에 있어서 깊이 있게 사고하면서 읽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 정독과 다독 중에서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독이 필요하고 이해를 통한 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독 역시 필수적이니 둘은 상호보완적이고 동시 발생적이다. 따라서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기를 강조한 한강의 독서법인 ‘반복성송’의 독서법은 현대인의 책읽기에 계승되어야 한다.

3) 작가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요즘에는 책속에 나를 대입시켜서 읽는 방법을 장려하고 있다. 독자의 주관에 의해 책을 이해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읽고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그 작품을 수용하는 독자가 자신의 배경지식에 의해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문단과 학계



에서 논란이 된 듯하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시작된 새로운 문이론인 독자 중심비평은 저자의 의도나 작품의 배경보다는 그 작품을 읽고 수용하는 독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모든 작품은 독자의 감정과 경험, 그리고 교육, 성장배경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작품 해석의 다양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중심비평은 책을 읽은 독자가 만들어내는 각기 다른 해석의 도출에 관심이 많았다.¹²⁰⁾ 즉, 독자의 감성이나 배경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독서법에서 독자중심의 책읽기 방법이 권장되었다.

독자중심의 책읽기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 물론 한강이 살았던 조선 중기는 독서가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자중심의 책읽기는 불가능한 독서법이었던 것을 주지하고 있다. 그 당시의 독서법이 오늘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김훈은 『칼의 노래』라는 작품의 첫 문장으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와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사이에서 한나절을 꼬박 고민하며 담배 한 갑을 태웠다고 한다. ‘은’과 ‘이’ 고작 한 글자 차이가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 작가에게는 점 하나, 조사 하나마다 의미가 다른 것이다.¹²¹⁾ 『책을 읽는 방법』¹²²⁾에서 히라노 게이치로는 작가의 관점으로 책을 읽기를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정리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숨겨 놓았으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으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독서를 여행에 비유하고 있다. 낯선 지방을 한두 시간 동안 훑 둘러보는 것과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지도를 들고 꼼꼼히 체크하며 돌아보는 것은 그 이해의 깊이나 인상의 강렬함, 또 얻은 지식의 양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연하다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감상을 하는 것보다는 작가의 의도, 배경, 의미 등을 파악해 가면서 작품을 감상을 했을 때는 전자와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게 된다.

120) 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문예사조 11회」, 『문학사상』 2016-3월호, 독자반응비평.

121) 송재환, 『초등고전읽기혁명』, 글담출판사, 2011, 213쪽.

122) 히라노 게이치로의 『책을 읽는 방법』, (문학동네, 2014)은 일본 현대문학의 기수로 꼽히는 히라노 게이치로의 독서법을 담은 책이다. 그는 스물넷의 나이에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며 해박한 지식과 도시문명에 대한 섬세한 시각으로 주목을 받아온 저자이다. 그의 작품세계의 근간이 된 창의적인 독서 기술을 이 책은 전해준다.



‘독서’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책을 읽음¹²³⁾’이라고 나온다. ‘읽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 본 결과 단순히 글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뜻이나 의중을 헤아려 안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책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를 다양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저술하였다. 따라서 독자는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저자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찾아야 한다. 머리말이나 부록을 살펴보면 저자의 주장, 의도, 목적이 바로 작가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고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 중요 내용이다. 그리고 책을 읽으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정보들을 찾으면서 읽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이다.¹²⁴⁾ 필자도 아이들의 독서를 지도할 때 머리말은 필독하게 한다. 작가들이 그 책을 쓴 목적이나 방향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서 머리말을 읽으면 그 책의 절반은 읽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서는 저자와의 대화이다. 독서를 통해서 저자를 만나면 독서를 통해서 저자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서 저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최근 인문학이 열풍을 일으키며 고전읽기가 어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에게까지도 유행처럼 번져있다. 고전을 읽으므로 얻게 되는 것도 많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독서법을 지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고전을 읽게 하는 것은 무거운 짐 하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고전읽기의 효과는 책속의 내용을 고스란히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독서방법이다. 책을 깊지도 않고 얇은 배경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읽게 되면 그 고전 책이 주려고 하는 것들의 파악이 힘들다. 따라서 작가의 입장에서 책을 읽으면서 책을 쓴 의도와 쓰는 동안의 과정 등을 마치 자신이 작가가 된 것처럼 생생하게 상상해보면서 읽도록 해야

123) ‘읽다’를 국어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글이나 글자를 보고 그음대로 소리 내어 말로 써 나타내다. 2. 글을 보고 거기에 담긴 뜻을 헤아려 알다. 3. 경전 따위를 소리 내어 외다. 4. (작가의 이름을 목적으로 하여) 작가의 작품을 보다. 5. (비유적으로) 그림이나 소리 따위가 전하는 내용이나 뜻을 헤아려 알다. 6. 어떤 대상이 갖는 성격을 이해하다. 7. 사람의 표정이나 행위 따위를 보고 뜻이나 마음을 알아차리다. 8. 어떤 상황이나 사태가 갖는 특징을 이해하다. 9. 바둑이나 장기에서, 수를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수를 헤아려 짐작하다. 10.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디스크 따위에 든 정보를 가져와 그 내용을 파악하다. 11. 어떤 글이나 말을 특정한 방식으로 풀이하다.

124) 광동우, 『독서혁명』, 은행나무, 2011, 144~145쪽.



한다. 이렇게 읽게 되면 작가가 전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서 넓은 폭의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모든 양서를 읽는다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데카르트의 이 말과 한강의 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인 소설이나 수필을 읽는다. 한강이 살았던 시절은 오늘날처럼 다양한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독서의 주도서인 경전을 통달할 수준까지 읽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선택할 권한도 없었다. 지금은 책의 종류가 절대적으로 많고 꼭 『사서오경』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현대의 독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문체나 작가가 추구하는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지는 글들을 찾아서 읽는다. 이때 한 작가의 책을 작가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읽게 되면¹²⁵⁾ 작가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작가와 그 작품세계가 당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면서 작가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전작주의 독서법 또한 한강의 작가 중심주의 독서법의 한 계승 형태라 할 수 있다.

4) 책을 읽은 후에는 토론시간을 가져라

‘책을 읽고 토론을 하면 아이의 사고력이 깊어진다.’ 이 말은 이제 상식이다. 토론은 상호 소통적인 논증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각기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일을 가리킨다. 토론은 논리적 논증보다 더 큰 범위의 논증에 속한다.¹²⁶⁾ 토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

125) 조희봉의 『전작주의자의 꿈』은 (함께 읽는 책, 2003) 24쪽을 참조했다. 저자 조희봉은 이런 독서법을 가리켜 ‘전작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전작주의는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을 통해 일관되게 흐르는 흐름은 물론 심지어 작가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징후적인 흐름까지 짚어내면서 총체적인 작품 세계에 대한 통시·공시적 분석을 통해 그 작가와 그 작품세계가 당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러한 작가의 세계를 자신의 세계로 온전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일정한 시선을 의미한다.”

126) 한국어 위키백과.



양한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어서 그에 대한 합의점이나 해결 방법을 찾는 협동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다. 토론은 하나의 주제로 토의를 하다가 의견이 양쪽으로 갈릴 경우에 주제를 안건으로 하여 찬성, 반대로 각각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도록 설득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을 받아들이고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토의·토론이다. 토의와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해서 교육의 가장 큰 맹점으로 지적 받고 있는 주입식 교육을 극복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독서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 주고 토론은 생각이 뛰어난 사람을 만들며 논술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다. 또 ‘영리하게 질문할 줄 아는 것이 진리의 반이다.’이라고 했다. 인류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질문 없이 이루어진 것들은 아무 것도 없다. 『질문의 7가지 힘』 127)에서 질문은 모든 학문과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토론은 질문하고 답을 찾는 대화의 과정에서 사고와 수행 활동을 촉진하여 학습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독후활동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세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논어』 책의 제목이 ‘토론하고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모두 대화를 통해서였다. 또 『한강집』의 상당부분이 한강이 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을 읽은 후의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책 속의 내용을 그냥 스쳐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끝없이 물음표를 붙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과학자 아이슈타인,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그리고 영화 감독 스피버그,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흐름을 이끌어 가는 사람 대부분이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다. 그들이 이처럼 뛰어난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습관’, ‘자녀와의 대화’, ‘책읽기’를 이야기 한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봄으로써 해서 학교를 궁금한 무언가를 묻는 곳으로 생각하게 했다. 사실 질문은 무턱대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문제를 질문하려면 그 문제를 한 번 더 깊이

127) Dorothy Leeds의 『질문의 7가지 힘』 (더난출판사, 2016)에 따르면 질문의 힘은 ① 답이 나온다. ② 생각을 자극한다. ③ 정보를 얻는다. ④ 통제가 된다. ⑤ 마음을 열게 된다. ⑥ 귀를 기울이게 한다. ⑦ 스스로 설득이 된다 등으로 정리한다.



생각해 보는 것과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 생각하는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다. 대화하는 습관이야말로 지금의 유대인들을 있게 한 보물 같은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¹²⁸⁾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다. 생각을 많이 하고, 대화를 자주 나누고, 책을 가까이 하라는 것뿐이다.

책을 읽고 난후에 ‘독후활동’으로 독후감을 쓰거나 토론 등을 많이 한다. 독후 활동은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 비판 의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도록 하고, 책에서 얻은 값진 교훈이 아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스며들도록 다지는 활동이다. 학교나 독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독서 수업의 상당한 부분이 독후 활동에 집중된다. 책은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자료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다른 이의 생각을 들으며, 떠오른 느낌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 사고력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지 결코 짧은 시간에 급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사고력을 키우는 일에 지름길은 없다.

현대인들이 독서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깨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생각의 한계를 깨는 것은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포함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것이다. 혼자서 독서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 독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지만 홀로 독서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독서 토론이 필요한 이유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을 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토론을 하다 보면 자신의 주장과는 다른 사람의 주장도 듣게 된다. 사람들은 서로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장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으면서 자신의 주장과 비교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식이 공유되고 분해되고 융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독서토론은 책에서 얻은 지식을 살아 있는 지식으로 변화시켜 주는 독서의 완성이다.¹²⁹⁾ 독서 토론을 통한 표현력과 이해력의 발달은 사고력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사고력의 확장으로 인해 창의력도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독서 토론이라 할 수 있는 한강의 朋友講習의 정신은 오늘날 독서과정에도 적극 계승되어야 한다.

128) 이어령, 『생각 깨우기』, 푸른숲주니어, 2012, 9~21쪽.

129) 강 건, 『독서의 힘』, 누림북스, 2015, 194~195쪽.



2. 독서의 목적에 대한 성찰

어떤 사람은 先知後行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知行合一을 주장하기도 한다. 어떠한 주장에서든 이 말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는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한다. 工夫는 실천이다.¹³⁰⁾ 조선 시대 지식인들의 독서관은 독서를 理致를 窮理하기 위한 학문의 과정 그 자체로 보고 있으며, 독서의 목적을 理致 窮究는 물론 자기완성과 구도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흥미를 위한 독서와는 그 목적이 다른 治學, 즉 학문의 과정 자체에 독서의 목적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책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깨달음과 실천을 하나로 본 것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실천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독서의 목적도 책을 읽고 공부를 통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다.

독서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시대를 초월해 성현들과 당대의 성공한 사람들이 끊임 없이 독서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서 독서가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힘을 믿으며 책을 읽고 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모두 독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차이를 내는 것은 왜일까? 그들만의 남다른 독서법 때문일까? 아니면 읽는 책의 종류 차이일까? 그들이 읽은 책들은 지금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다. 일부 도서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도 있다. 우리가 책의 양과 질에 집착했던 반면 그들은 책을 읽으며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서 체득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회의 변화에서 영향을 미쳤다. 이 장에서는 한강의 독서법을 중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

독서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책의 글자를 읽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130) 임수무, 앞의 책, 36쪽.



책의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책에서 깨달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하다. 공자는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했다. 이는 『논어』, 「爲政」편에 나오는 구절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어지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다. 주자는 『四書集注』 131)에 이 말을 아무리 배워도 생각하고 이치를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의미로 주석을 달았다.¹³²⁾ 많은 책을 읽어도 읽은 것을 흡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놀이에 불과할 뿐이다.

『사서집주』에서 강조한 ‘배운 것을 익힌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한자어 ‘學習’¹³³⁾의 의미로 바로 연결된다. 우리는 흔히 배우는 것, 즉 누군가가 가르치는 내용을 흡수하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부는 반드시 ‘學’에 ‘習’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습’자를 파자해보면 두 개의 날개로 나는 형상이다. 새를 관찰해보면 아기 새는 어미 새가 날갯짓하는 것을 보고 날개를 움직여 파닥이면 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스스로 날개를 파닥이며 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기 새는 영원히 날 수 없다.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을 배우며 그의 영법을 아무리 외워도 실제 내가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어가며 익히지 않으면 헤엄을 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결국 공부는 배우는 것과 익히는 것 두 개의 날개로 나는 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배우는 것만 공부라고 여기고 제대로 익히지 않으니, 실제 생활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¹³⁴⁾

한강은 하학상달을 강조했다. 한강이 중요하게 생각한 『소학』은 지식중심의 학습보다는 실천학문에 초점을 두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주변 정리정돈 및 공경, 인사 등과 같은 하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면 이것이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난다.¹³⁵⁾ 이렇게 선조

131) 유학의 十三經 가운데 『論語』, 『孟子』, 『禮記』 가운데 篇들인 『大學』, 『중용』 등을 선택하여, 성리학이 제시한 理氣論의 철학적 관점으로 주석하여 새롭게 表彰한 성리학의 주요 경전이다. (한국 민족문화대백사전)

132) 진리를 마음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고 깨달음이 없게 된다. 배운 것을 익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고 불안하게 된다. (중략) 널리 배우고 깊이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다. (不求諸心, 故吳而無得. 不習其事, 故危而不安. ○程子曰: 博學 審問 慎思 明辨 篤行五者, 廢其一, 非學也.)

133) 중국에서는 학습을 ‘니엔슈’(念書)라고 부르는데, 직역하면 ‘책을 읽는다’라는 의미이다. (임수무, 『공부론』, 예문서원, 2007, 12쪽.)

134)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리더스북, 2012, 276~282쪽.



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교육을 강조했다. 인간을 말하고,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이 바로 학문의 주체였으며,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 예절의 습관은 어린 시기의 인격형성을 선도하는 방법으로써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몸에 배도록 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좋은 습관은 일찍부터 버릇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본생활교육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교육이다. 교육의 목적이 전인교육에 있었다.

하학의 시작은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날 하학에 해당하는 것이 행동예절, 언어교육, 어른 공경하기 등과 같은 일상의 기본 생활예절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예절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이해·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을 표현하는 일이며 사회구성원 안에서 타인과 더불어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¹³⁶⁾ 21세기 인류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성 회복이다. 인간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은 타인과 내가 어울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 부모, 형제, 이웃, 사회, 나라, 세계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 등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 도덕이며 이것을 근간으로 인간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¹³⁷⁾ 인간관계의 기본 정신은 ‘배려’이다.

한때 지능지수를 중요하게 여긴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점차 감정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머리만 좋은 천재가 아니라 감정이 풍부한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인물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인간미가 있는 따뜻한 사람, 배려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신중해지고, 말과 행동이 신중해지므로 인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게 된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다. 독서가 마음의 양식이기 때문에 건전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독서를 해야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을 친구 삼아 지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인간이 살아가

135) 김미라, 앞의 책, 277쪽.

136) 김미라, 앞의 책, 243쪽.

137) 김미라, 앞의 책, 241쪽.



는 데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필요하며 그것은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절실한 시대이다. 사람을 소중히 알고, 소중한 사람을 귀하게 오래 사귀는 방법을 교육해야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고 글로벌 시대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경쟁시대에 품위 있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성 상실, 덕성교육의 부재 등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바로 덕성교육, 예절교육인데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내재화하여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실천하면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덕성교육은 한 인간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사회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강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목적’은 현대인의 독서생활에 주요한 좌표로 계승될 필요가 있다.

2)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천

한국만큼 최단 기간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는 없다. 현재 우리의 정보화 수준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¹³⁸⁾ 하지만 지식사회로서의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선진국이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 집약적 산업¹³⁹⁾으로 진입했다면 우리는 지식사회로의 전환이 늦었다. 그 이유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인재 교육으로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력보다는 핵심 정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자본을 가지고 선진국의 기술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면 지식사회로의 진입은 모방으로는 불가능하고 개성과 창의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제 창의적

138)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7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초고속 인터넷 품질 연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홍콩이 2위, 일본이 3위에 올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일본, 스웨덴 등과 더불어 고화질(HD)TV, 화상 통화 등 차세대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필요한 초고속인터넷 품질을 갖춘 14개 국가에 포함됐다. (2010. 10. 19 방송통신 위원회 발표자료 참고.)

139) 지식 집약적 산업의 특징은 지식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 시스템, ‘아바타’와 ‘해리포터’ 같은 영화 콘텐츠, 애플이 제공하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등이 바로 지식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기술들이다.



아이디어는 경쟁력과 생존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우리사회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인재가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여기에는 풍부한 지적 재산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 방법 중에서 독서는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다.

과거 역사에서 패망한 국가를 살펴보면 국가의 내·외부적 환경이 변함에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패망의 길을 걸었다. 우리의 근대화 시기도 이와 같았다. 개방해야 할 시기에 대원군이 통상을 거부하고 왕권강화만을 추구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좇아가지 못했다. 사회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스스로의 변화를 거부했다. 결국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강대국에 의해 변화를 강요받으며 일제 치하의 굴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기업에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서 1993년 “아내와 자식 빼고 모두 바꿔라”는 이견희 회장의 생각이 현재 삼성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변화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무시한 채 단순히 ‘어떻게 하면 좋다더라’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천은 문제에 대한 고민과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 구조는 각각 개체로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개인주의적 사고로 인해 이기주의를 낳는데 구성원들끼리의 경쟁심을 촉발하여 현대사회는 ‘너 죽고 나 살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교육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한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에서 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상의 삶과 생계에 관련된 직장이 더욱 그렇다. 취업하는 것과 취업하고 계속 일하는 것 모두 불확실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확실한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려 한다. 더욱 확실한 것이란 ‘돈 잘 벌고 안정된 직장’ 쫓이 될 것이다. 불확실성은 대학에서도 기능하여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들도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공=취업’ 공식에 맞추고 있다.¹⁴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역량중심교육’¹⁴¹⁾이

140) 임춘택, 『인문학과 글쓰기 역량 : 감성·창의·소통·직무』, 도서출판 경진, 2013, 207~218쪽.



다. 현대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익힐 것인가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야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며,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지식을 횡단하여 융·복합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¹⁴²⁾ 지금이 분과학문의 시대임을 거역할 수 없다. 눈이 불편하면 안과에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는 것처럼, 역사와 철학이 나누어지고 철학과 문학이 분리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물론 안과 의사는 눈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눈의 전문가이고 치과 의사는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이의 전문가이지만, 안과나 치과 모두 결국은 사람의 건강이 궁극적 목적이다. 인문학 역시 전인격적인 학문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은 분과적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다운 사람의 실현이다.¹⁴³⁾

시대적으로 현재와 미래에는 지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지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확연히 변화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에 더 필요한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의 삶에서 지식은 더 이상 정주하거나 고정적이고 고립되어 각각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생성과 유용성은 그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질적으로만 여겼던 지식들이 상호 융합하여 그 결과물들이 현실의 삶에 바로 적용되고 있다. 삶의 주변부라고 치부하고 이제까지는 이것들을 지식 활동의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이라 여겨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들도 현재와 미래에는 지식 행위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지식 활동에 가치 있는 것으로 활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¹⁴⁴⁾ 책을 통해서 내면화된 노하우(knowhow)는 능력을 활용

141) 역량중심교육에서는 언어로 명시될 수 있는 지식과 이를 습득하는 행위보다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암묵적 차원의 지식 행위와 수업 안팎에서의 지식의 실제적 적합성을 강조한다. 즉 역량중심교육을 통해 얻게 된 특정 역량은 단순하고 개별적인 정보 습득과는 이해 단계를 넘어 인식 주체에게 암묵적으로 내면화·체화되어 있으며 고도의 판단능력을 통해 문제와 현실 상황에서 재창조, 재해석, 재배열 등으로 새로운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다.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합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련의 실천과정을 통해서 지식은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고 지식 행위자는 학교 안팎에서 해당 역량을 체화하게 된다. (손민호,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competence)의 의미 :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142) 임춘택, 앞의 책, 210쪽.

143) 임수무, 앞의 책, 5쪽.

144) 이돈희,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새로운 위상」,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제1부,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1999, 1~22쪽.



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암묵적인 지식이다. 이 지식은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재조직되고 확장된다. 역량의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이란 절대적 명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세계와의 실천적 교섭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습득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실천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변형된다.¹⁴⁵⁾

솔선하여 책을 읽고, 좋은 책을 권하고, 책의 내용을 함께 논하고, 좋은 책을 베껴 쓰고, 새로운 책을 써낸 한강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오늘날 우리가 책읽기에 있어서 쉽고 편한 방법론과 당장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본질에 흔들림 없이 진심으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현대도 독서가 중요하다는 말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독서 태도나 방법, 목적 중에서 무엇을 보다 강조하는가 하는 지향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선중기의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 과제들을 성리학적 보편 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학문적 노력의 소산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⁴⁶⁾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각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한강의 독서법은 당시의 시대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도덕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최선의 독서법이었다고 평가가 되어야 한다. 역사는 나선형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했다. 끝없이 직진이 아니라 퇴보하는 듯 보이지만 그 힘으로 다시 진보하기 때문이다. 최첨단의 모바일 시대에 다시 책 읽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 실용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퇴보의 變曲點을 지나 다시 진보해야 할 기로에 서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¹⁴⁷⁾

145) 송경오, 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4권 4호, 한국교육개발원, 2007, 164쪽.

146) 김 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년, 185쪽.

147) 권영식, 앞의 책, 15쪽.



V. 결론

한강이 살았던 16세기 후반 17세기 초는 사화, 당쟁, 왜란 등으로 나라의 혼란은 물론이고 개인도 어려운 삶을 살았던 시기이다.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그는 지혜롭게 살았었음 물론이거니와 조선 유학사에 예학과 심학의 거유로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의 이런 모습 基底가 독서이고 그는 평생에 걸쳐 책을 읽고 저술편찬을 반복했다. 한강이 많은 저술을 편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물을 깊이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안목은 독서에서 비롯된다. 독서에서 비롯된 사색을 통해 시대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관직에 있을 때나 서재를 운영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책을 읽었다. 한강에게 있어서 독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교양으로서의 단순한 책읽기의 개념이 아니다. 독서 그 자체가 곧 학문의 과정이며 교육이었다. 경전 속에 나타난 성현들의 말을 독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개인의 인격을 수양하고, 실천을 통해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점점 다양화, 개별화되는 환경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뿐 아니라 사회의 각 부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전문지식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물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엮거나 연결시켜 비틀고 확장시키는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적합한 인물은 사상적 개방성과 실천성을 갖춘 한강이다. 그리고 한강의 독서법을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한강은 퇴계 와 남명, 양현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리고 두 스승으로부터 배운 ‘경’과 ‘의’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경의협지’를 삶의 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독특한 학문세계를 구축하였다. 이 점은 여느 학자들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강이 언급하는 독서법은 修己治人이 독서의 궁극적 목적으로 성리학적 사유를 표출하고 있지만 여기에 한강의 창의력이 얹혀졌다.

II장에서 한강이 지적한 독서의 병폐는 한강이 살았던 조선시대 당시에 맞추어져 있다. 과거 시험의 합격을 위한 독서의 상황과 오늘날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의 도구로 입시에 쪼들고 입신출세 위주로 전략한 독서 상황들과 닮았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물질적인 욕심과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정신적 교만함이 어리석고 위험한지를 지적한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처럼 옛 것을 익히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강이 제시하고 있는 독서법들을 활용하여 오늘날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한강이 제시하고 있는 독서법은 자세를 언급한 ‘공아백념형 독서법’과 방법을 언급한 ‘반복성송형 독서법’, 그리고 목적을 언급한 ‘친서미도형 독서법’로 나뉘어서 살펴보았다. ‘공아백념 독서법’에서는 내적인 자세인 마음 다스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복성송형 독서법’에서는 반복읽기,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기, 글쓴이의 입장에서 읽기, 핵심을 짚으며 읽기, 함께 읽기 등의 독서의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한다. ‘친서미도형 독서법’에서는 깨달음의 즐거움과 실생활의 실천 등으로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제시한다. 그리고 유형간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한강의 독서법들은 마음공부- 글공부- 몸공부로 이 셋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형상으로 특히, 한강이 제시한 體認 · 體察 · 體驗 · 體行은 모든 독서법들이 歸結되는 독서법이다.

Ⅳ에서는 한강 독서법의 현재적 의의에 대해서 독서의 자세와 방법에 대한 성찰과 독서 목적에 대한 성찰로 나누어 논의해 보았다. ‘마음을 다스려 책에 정신을 집중하라’,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어라’, ‘작가의 관점에서 책을 읽어라’, ‘책을 읽은 후에는 토론시간을 가져라’, ‘책을 읽었으면 책의 내용을 실천하라’ 등의 다섯 가지의 항목으로 나눠 정리하여 보았다. 특히, 기존의 독서전략에서 빠져있는 마음을 다스리며 독서에 임하는 한강의 독서법의 의미와 전통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한강의 독서법은 독서와 생활의 일체감이다. 그리고 현대의 과학적인 독서 이론에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독서의 과정들이 제시되어 있다. 서양의 독서이론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심화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국어대사전』
『국역 한강 정구 문집』
『국역 聖學十道』
『南冥集』
『퇴계집』,

2. 논문

- 강영안, 「주자의 독서론」, 『철학연구』 제53집, 철학연구회 학회지, 2001.
- 권인호, 「南冥學派의 實學思想 研究」, 『南冥學研究論叢』 제5집, 남명학연구원, 1997.
- 권진호, 「寒岡 鄭述의 程朱學 受容樣相」, 『南冥學研究』 제24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7.
- 김장태, 「한강 정구의 예학사상」, 『유교사상연구』 4·5합집, 한국유교학회, 1992.
- 김종우, 「寒岡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 김경수, 「정구의 함주지 연구」,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 우강권태원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4.
- 김광순, 「寒岡의 生涯와 文學」,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 김기호, 「이서관서, 이아관서, 그리고 이서관아 독서법의 순환체계」, 『한국사상과 문화』 75권 0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4.
- 김무진, 「寒岡 鄭述의 현실인식과 경세관」, 『한국학논집』 48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 김문식, 「16~17세기 한강 정구의 지리지 편찬」, 『민족문화』 29호, 민족문화추진회, 2000.
- 김사경, 「조선시대 독서론과 한문교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6.
- 김상래, 「寒岡 鄭述의 도덕교육론」, 『南冥學研究論叢』 12호, 남명학연구원, 2003.



- 김성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문예사조 11회」, 『문학사상』 2016-3월호, 2016.
- 김수경, 「조선시대 독서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13권 제2호, 한국비블리아학회, 2012.
- 金 泳, 「朝鮮時代 讀書論 研究 : 退溪와 栗谷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12輯, 한국한문학연구회, 1989.
- 김원준, 「퇴계와 율곡의 독서법 용어를 통한 고전독서이론의 모색」, 『영남학』 제21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2.
- 김은경,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의 의미와 방법」, 『교원교육』 제22권 3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6.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분화 - 유성룡 · 정경세 학맥과 정구 · 장현광 학맥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40집, 조선시대사학회, 2007.
- 김향수, 「한강 정구의 학문과 『歷代紀年』」, 『한국학보』 12권 4호, 한국학보, 1986.
- 김현수, 「寒岡 鄭述의 禮學思想」, 『東洋禮學』 6집, 동양예학회, 2001.
- 김현수, 「漢岡 鄭述의 禮學思想-『五先生禮說分類』를 中心으로」, 『東洋禮學』 6집, 동양예학회, 2001.
- 노병성,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독서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출판학연구』 제52호, 한국출판학회, 2007.
- 도민재, 「寒岡 鄭述의 學問과 禮學思想」, 『韓國思想과 文化』 18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 朴英鎬, 「寒岡鄭述의 學問精神과 文學觀」, 『東方漢文學』 第10輯, 동방한문학회, 1994.
- 박종진, 「한강 정구의 수양론」, 『東洋禮學』 6輯, 동양예학회, 2001.
- 서수생, 「寒岡 鄭述의 禮學」,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 설석규, 「退溪 李滉의 理學과 정치적 의미」, 『韓國思想史學』 제29집, 한국사상사학회, 2007.
- 손민호, 「실천적 지식의 일상적 속성에 비추어 본 역량(competence)의 의미 : 지식기반사회? 사회기반지식!」, 『교육과정연구』 24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6.
- 송경오, 박민정, 「역량기반 교육개혁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교육』 34권 4호, 한국교육개발원, 2007.
- 송준호, 「寒岡 鄭述의 詩文學에 대하여 - 거울로서의 詩」, 『東方漢文學』 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 신태수, 「『朱子語類』-〈書法〉에 나타난 活看論」, 『韓民族語文學』 60호, 韓民族語文學會, 2012.



- 신태수, 「남명 독서법의 특징과 그 사상사적 위상」, 『영남학』 제27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5.
- 오이환, 「南冥學資料叢刊解題 緒論」, 『남명학연구논총』 제1집, 남명학연구원, 1988.
- 우경섭, 「한강 정구의 학문연원과 도통적 위상」, 『역사문화논총』 4호, 역사문화연구소, 2008.
- 이금숙, 「朝鮮時代 漢文 散文에 나타난 讀書觀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이돈희,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새로운 위상」,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제1부, 교육부정책연구보고서, 1999.
- 이범직, 「한강 정구의 학문과 예학」, 『道山學報』 6호, 도산학술연구원, 1997.
- 이상필, 「寒岡의 學文性向과 文學」, 『南冥學研究』 1집,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1991.
- 이성희, 「조선시대 중인층의 독서론에 관한 연구」, 『독서문화연구』 6호, 대진대학교 독서문화연구소, 2006.
- 임종진, 「한강 정구의 수양론」, 『동양예학』 제6집, 동양예학회, 2001.
- 전재강, 「寒岡 鄭述 心學의 教育的 性格」, 『南冥學研究論叢』 12집, 남명연구원, 2003.
- 정순우, 「성주지역의 퇴계학과 - 한강과 동강을 중심으로」, 『한국의 철학』 30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1.
- 정순목, 「寒岡 鄭述의 敎學思想」, 『韓國의 哲學』 13호,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985.
- 정우락, 「한강 정구의 사물인식방법과 세계지향」, 『한국사상과 문화』 제49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08.
- 조희정, 「전통적인 글 읽기의 성격과 과정-『성학집요』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권, 한국문학교육학회, 1998.
- 최석기, 「남명사상의 본질과 특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27권, 경북대학교퇴계연구소, 1999.
- 최영성, 「寒岡 鄭述의 學問方法과 儒學史的 位置」, 『한국철학논집』 제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1997.
- 최영성, 「한강 정구의 학문과 조선유학사에서의 위치」, 『남명학연구논총』 제5집, 남명학연구원, 1997.
- 팽 립, 「寒岡 鄭述 五先生禮設 初探」, 『南冥學研究』 11집, 경상대학교남명학연구소, 2001.
- 한상규, 「鄭寒岡의 敎育思想」, 『東方漢文學』 10집, 동방한문학회, 1994.
- 홍우홍, 「寒岡의 〈上退溪李先生書〉 - 一考」, 『東洋禮學』 제6집, 동양예학회, 2001.



洪雲寧, 「栗谷 李珥의 讀書論 研究」, 韓國敎員大學敎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4.

홍원식, 「정구의 한강학과 퇴·남학」, 『영남학』 제26호, 경북대학교영남문화연구원, 2014.

3. 단행본

강 건, 『독서의 힘』, 누림북스, 2015.

곽동우, 『독서혁명』, 은행나무, 2011.

권영식, 『21세기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다산의 독서전략』, 글라이더, 2012.

김미라, 『어린이 교육, 공자에게 묻다』, 조울, 2013.

김 영, 『조선후기 한문학의 사회적 의미』, 집문당, 1993.

김은하, 『독서교육 어떻게 할까?』, 학교도서관저널, 2014.

남명학연구원, 『한강 정구』, 예문서원, 2011.

박경철,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리더스북, 2012.

박영목, 『독서교육론』, 도서출판박이정, 2013.

송재환, 『초등고전읽기혁명』, 글담출판사, 2011.

신태수, 김원준, 김기호, 김홍수, 『동양고전독서이론용어해설집』, 영남대학교출판부, 2011.

신태수, 『퇴계의 독서생활』, 지성인, 2013.

이기동, 『대학·중용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6.

이어령, 『생각 깨우기』, 푸른숲주니어, 2012.

이영돈, 『마음』, 예담, 2006.

임수무, 『공부론』, 예문서원, 2007.

임춘택, 『인문학과 글쓰기 역량 : 감성·창의·소통·직무』, 도서출판 경진, 2013.

조동일, 『독서 · 학문 ·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조희봉, 『전작주의자의 꿈』, 함께 읽는 책, 2003.

최완기, 『한국의 전통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한상우, 『우리 것으로 철학하기』, 현암사, 2003.

현상윤, 『조선유학사』, 민중서관, 1949.

홍원식,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예문서원, 2008.

홍원식,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히라노 게이치로, 『책을 읽는 방법』, 문학동네, 2014.

Dorothy Leeds, 『질문의 7가지 힘』, 더난출판사, 2016.



【부 록】

寒岡 鄭述 讀書法의 類型

空我百念型 讀書法

空我百念(공아백념)

- ▶ 晨興坐前堂。看近思錄數板。舉目雲山。空我百念。奉玩遺訓。(새벽에 일어나 앞강당에 앉아 《근사록》 두세 판(板)을 읽었다. 구름과 산을 바라보며 온갖 잡념을 비운 채 선현이 남긴 가르침을 받들어 음미하노라니 나도 모르게 정신이 전일해지고 맛이 있었다.) <『寒岡集』(9), 雜著, 遊伽倻山錄>

沈潛玩索(침잠완색)

- ▶ 先生嘗教學者曰 讀書須要反覆成誦 沈潛玩索 以自得焉 古人云 千周萬遍 其義自見 今之學者 却不要熟 只恁麼草草看過 便自爲足 是雖句讀之學 亦且不及於古人也(선생이 일찍이 배우는 이에게 가르치기를, “독서할 적에는 모름지기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깊이 음미하여 스스로 터득해야 하니, 옛사람은 이르기를, ‘천 번을 읽고 만 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하였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자들은 익숙하게 읽지 않고 그저 이렇게 대충 보아 넘기면서 만족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구두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조차 옛사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寒岡集』(4), 讀書, 崔백경>

靜坐讀書(정좌독서)

- ▶ 想君有靜坐讀書之樂。恨不能往同之也。茲承辱惠書。欣審歲寒學履加福。且有深體而力行之意 (마음을 가라앉히고 단정하고 조용히 앉아 글을 읽는 즐거움을 누릴 그대를 생각하고 나도 그곳으로 찾아가 그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한으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 보내온 편지를 받고서 추운 날씨에 근황이 더



평안하며 아울러 성현의 뜻을 깊이 체득하고 힘써 실천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살피고 나니, 더더욱 흐뭇하였네.) <『寒岡集』(4), 書 答蔡靜應 夢硯>

反覆成誦型 讀書法

反覆成誦(반복성송)

- ▶ 先生嘗教學者曰 讀書須要反覆成誦 沈潛玩索 以自得焉 古人云 千周萬遍 其義自見 今之學者 却不要熟 只恁麼草草看過 便自爲足 是雖句讀之學 亦且不及於古人也(선생이 일찍이 배우는 이에게 가르치기를, “독서할 적에는 모름지기 반복하여 읽어서 암송하고 깊이 음미하여 스스로 터득해야 하니, 옛사람은 이르기를, ‘천 번을 읽고 만 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하였다. 그런데 지금 배우는 자들은 익숙하게 읽지 않고 그저 이렇게 대충 보아 넘기면서 만족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구두를 배우는 데에 있어서조차 옛사람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寒岡集』(4), 讀書, 崔백경>

讀第一句 心在第一句 (독제일구 심재제일구)

- ▶ 竊謂先生讀書時 讀第一句 心在第一句 讀第二句 心在第二句 讀未畢 雖有急速 未嘗遽起 讀既畢 輒整卷危坐 沉吟良久 而後酬應他事(선생이 독서하는 것을 한 번 엿보았더니,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첫 번째 구절에 머물러 있고 두 번째 구절을 읽을 때는 마음이 그 두 번째 구절에 머물러 있었다. 읽기를 다 마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더라도 중단하고 일어난 적이 없었으며 읽기를 다 마치면 곧 책을 똑바로 정돈하고 꿰어 앉아 한참 동안 그 내용을 다시 뇌인 뒤에 다른 일에 응대하였다.)<『寒岡集』(4), 讀書, 文緯>

專一看書(전일간서)

- ▶ 專一看書。而又致力於大賢憂道之書。若至誠讀了而深體之。則其深造自得之功。其可量耶。不勝慰喜(마음과 힘을 오로지 책 보는 일에 쏟고 또 대현(大賢)이 도



학의 전통이 끊길까 걱정되어 지은 글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았네. 만일 이 책을 정성 들여 읽고 그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다면 도의 경지로 깊이 들어가 저절로 터득하는 공부가 어찌 한량이 있겠는가. 흐뭇하고 기쁘기 그지없네.)
 <『寒岡集』(4), 書 答李茂伯潤雨>

熟讀精思(숙독정사)

▶ 今日只合先從四書 熟讀而精思之 以爲體驗躬行之助 不亦可乎 且閉戶獨學 不如朋友講習之樂 每念君發憤追隨 可以有相發之助 而居既不邇 不能如願 徒有向風馳想而已(지금은 다만 四書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배우는 것이 벗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히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네. 그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 서로 진보하는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곳이 가깝지 않아 소원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생각만 간절할 뿐이네.)<『寒岡先生文集』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只要精熟(지요정숙)

▶ 先生曰 讀書不要多 只要精熟 不熟則不能得其義 不精則不能察其理(선생은 말씀하기를, “글을 읽을 때는 분량에 치중하지 말고 오직 정밀하고 익숙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정밀하지 않으면 그 이치를 살필 수 없다.”하였다.)<『寒岡集』(4), 讀書, 孫處訥>

因文推理(인문추리)

▶ 先生讀書 必究大義 爲詞章 不事世俗陳腐之態 因文推理 就辭着實 一時流輩 鮮有及之者 德溪甚愛重之 亟稱道之 搢紳之來過齋堂者 見先生言行文章 皆知其他曰必爲大儒(선생은 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大義를 탐구하고 문장을 지을 때는 세속의 진부한 작태를 따르지 않았다. 곧 문자로 인해 이치를 추리하고 문장의 내용을 실제와 부합되게 하였는데, 그 당시 동류 중에는 그에 미치는 자가 없었으므로 德溪는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자주 칭찬하였다. 학당을 찾아온 사대부들이 선생의 언행과 문장을 보고 모두 후일에 반드시 大儒가 될 것임을



알았다.)<『寒岡集』(4), 讀書, 李埴>

必先知要 (필선지요)

- ▶ 示喻以通達古今 爲初學之先務 而博觀諸家之書 其留意進學之功 如是甚善 然爲學 必先知要 如不知要 而徒博之是務 則將不幾於汎濫駁雜 而不知所以自擇者乎(그대가 고금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을 처음 배우는 자의 급선무로 여겨 제가의 서적을 두루 보고 있다 하였데, 학문을 진보시키는 공부에 이처럼 정신을 쏟는다는 것은 매우 훌륭하네. 그러나 학문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핵심을 알아야 하니, 만일 무엇이 핵심인 줄을 모르고 그저 널리 배우려고만 한다면 장차 이것저것이 뒤섞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결과가 생기지 않겠는가.) <『寒岡先生文集』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朋友講習(붕우강습)

- ▶ 今日只合先從四書 熟讀而精思之 以爲體驗躬行之助 不亦可乎 且 閉戶獨學 不如 朋友講習 之樂 每念君發憤追隨 可以有相發之助 而居既不邇 不能如願 徒有向風馳想而已(지금은 다만 四書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배우는 것이 벗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히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네. 그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 서로 진보하는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곳이 가깝지 않아 소원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생각만 간절할 뿐이네.) <『寒岡先生文集』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親書味道型 讀書法

親書味道(친서미도)

- ▶ 想吾尊兄棲泊寂寞之濱 疾病調護之暇 日有 親書味道 之樂 造詣之深 當非區區所敢



測者 安得置身其傍 以資講磨之益耶 不勝歆想之至(우리 존형께서는 적막한 물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병을 조리하는 여가에 날마다 글을 대하고 도를 음미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도의 경지로 들어간 그 깊이를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하면 내 몸이 그곳에 함께 어울려 학문을 강마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흠모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寒岡先生文集』卷之三, 書, 答朴德凝>

菟參之悅 (추환지열)

- ▶ 先生嘗讀朱子大全語類等書 至忘寢食曰 孟子云 理義之悅我心 有菟參之悅我口 吾於此書亦云 李先生(退溪先生)在洛中 始得見此書 便解官載而歸 平生得力 皆在此書 如此而後 方可謂讀書 以余觀之 退溪朱子後一人也 先生退溪後一人也(선생은 일찍이 주자대전과 주자어류를 읽을 때 침식을 잊을 정도로 열심히 하며 이르기를, “맹자의 말씀에 ‘도리와 의리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육고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다.’하였는데, 나는 이 책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다. 이 선생(李先生) -퇴계 선생- 이 서울에 계실 적에 처음 이 책을 얻어 보시고는 곧 벼슬을 떠나 책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이 선생이 평소에 힘을 얻으신 것은 모두 이 책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야만 비로소 글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하였다. 나의 소견으로 보면 퇴계는 주자 이후에 첫째가는 사람이고 선생은 퇴계 이후에 첫째가는 사람이다. <『寒岡集』(4), 讀書, 이서>

深造之樂(심조지악)

- ▶ 耳羨君結廬松楸之下 讀書求志 日有深造之樂 何由合併 得窺餘緒之一二耶(고향 선영의 아래에 집을 짓고서 글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나날이 공부가 깊이를 더해 가는 즐거움이 있는 그대가 부럽습니다. 무슨 수로 우리 함께 어울려 성현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寒岡先生文集』卷之三, 書, 答徐行甫思遠>



體認踐履(체인천리)

- ▶ 先生於聖賢之書 無所不讀 而讀則必求所當然所以然而知之 知之則輒體認於心而爲踐履之地(선생은 성현의 글에 대해 읽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글을 읽으면 반드시 그 내용의 도리로 보아 당연한 것과 그렇게 된 까닭을 탐구하여 알았으며 그것을 안 뒤에는 곧 마음에 체득하여 실천하는 바탕으로 삼았다.)<『寒岡集』(4), 讀書, 郭近>

體驗躬行(체험궁행)

- ▶ 今日只合先從四書 熟讀而精思之 以爲體驗躬行之助 不亦可乎 且閉戶獨學 不如朋友講習 之樂 每念君發憤追隨 可以有相發之助 而居既不邇 不能如願 徒有向風馳想而已(지금은 다만 四書부터 익히 읽고 정밀하게 사색하여 이치를 깊이 체득하고 몸소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을 닫고 혼자 배우는 것이 벗끼리 어울려 강론하며 익히는 즐거움이 있는 것보다 못한 것이네. 그대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와 함께 어울려 지내면 서로 진보하는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곳이 가깝지 않아 소원대로 하지 못하니, 그저 생각만 간절할 뿐이네.)<『寒岡先生文集』卷之五, 書, 答吳翼承長>

體認(체인) · 體察(체찰) · 體驗(체험) · 體行(체행)

- ▶ 先生語學者曰 所貴乎讀書者 非爲剽竊章句 以成文章取科第而已 讀聖賢經傳 其法有四 一曰體認 二曰體察 三曰體驗 四曰體行 苟不用此四法 其義亦無以通曉 況於吾身心有何益焉 古人鸚鵡之譏 可不懼哉(선생이 학자에게 이르기를, “독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章句를 표절하여 문장이나 만들고 과거 시험에 급제하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성현의 경전을 읽는 데에는 그 법이 네 가지가 있는 데, 첫째는 體認이고 둘째는 體察이고 셋째는 體驗이고 넷째는 體行이다. 만일 이 네 가지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글의 의미도 분명히 알 수 없는데 더구나 자기의 몸과 마음에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따라한다는 옛사람의 비난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하였다.) <『寒岡集』(4), 讀書, 郭近>



M. A. Thesis

Types of Reading Methods by Hangang and the Modern Significance

Bae Nan-hi

Department of Reading and Writing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i-ho, Prof. Shin Tae-su)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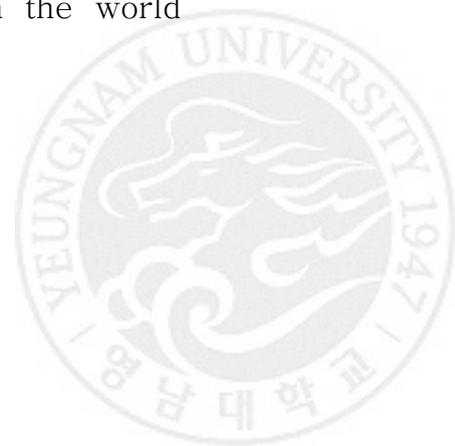
Hangang Jeong Gu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Ye scholars in the Joseon Dynasty from the late 16th century to the early 17th century. Research on Hangang published so far was mostly focused on Study of Ye. Most of them studied the Neo-Confucian origin of Gahak with his scholastic history in his family: him as a great-grandson of Hanhwondang Kim Goengphil. Yeongnam scholastic mantle was succeeded by inheriting Study of Toegye and accepting the influence of Study of Nammyeong; the research revealed activities of Hangang within the range of the activities of Confucian scholars in the late 16th century. Also, it explained the status of Hangang as the scholastic origin of Near-Seoul Southerner Scholars.



Hangang, a student of Toegye Lee Hwang and Nammyeong Cho Sik, succeeded the scholastic world and thoughts of the two teachers. He accepted both Study of Toegye that emphasized introspective discipline and the scholastic mantle of Study of Nammyeong that emphasized social practice at the same time. He also completed his own scholastic world and thoughts beyond the two teachers' frames. Hangang is considered a Neo-Confucian scholar who has not only internal and external but also personally and socially practical tradition. Created by Hangang, 'Study of Hangang' affected Near-Seoul Southerner Scholars later.

Reading is the most representative learning method of all time. The trend of reading after the introduction of Chu His's Neo-Confucianism in the Confucian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was in line with Chu His's reading method. However, there were a few differences in the reading methods due to the state of the period and divergence of scholars' opinions. Hangang also accepted reading methods of the two teachers and developed his own reading method. The study was focused on his reading method that became the basis of Hangang's scholastic world and thoughts.

Regardless of time periods, the importance of reading has been emphasized. However, answers to why we should read cannot but be sligh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ime and situation. Moreov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ading unquestioningly can diminish the benefits of efficient reading. It is obvious that reading is a universal tool to acquire practical and internal insights. Book is the window of world from others' perspectives; we cannot experience all happening in the world



or share other people's feelings. Reading, however, can help understand various lives and works in the world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time specifically and logically, and draw application of the in to the life.

Hangang pointed out scholastic ills and presented the reading method. In a nutshell, his reading metho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mptying and soothing your mind before reading and straightening the mind while reading for the right attitude. When it comes to reading method, he suggests repeated reading, careful and habitual reading, reading from the writer's perspective, reading by considering the key idea, reading in group, etc. By doing so, you can reach the Hangang's purpose of reading, which is to extend and practice the pleasure of enlightenment and knowledge acquired from the reading to not only yourself but also the society.

The modern society requires imaginative power, creativity and judgment. Rather than just holding information, having ability to resolve problems with the information is valued in this society. Therefore, the information era requires much more reading and thinking. Even the same knowledge can have different values according to how to use and interpret. In this era,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ask with imaginative power and think from different angles. Therefore, the study reviewed the reading method of Hangang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the traditional reading method on the modern people.

The reading method suggested by Hangang is expected to help the modern people introspect their reading attitudes, reading techniques and purposes of reading. What Hangang emphasizes is to integrate reading into the life, moving beyond



simple acquisition of knowledge or reading for fun. It is critical to practice what you realize from reading in personal and social lives. Additionally, it presents a reading process that is as systematic and strategic as the modern scientific reading theory. As such, further detailed discussion on how to utilize it in the educational field is required.

Keywords: Hangang, Toegye, Nammyeong, Yeongnam scholastic mantle, 'Study of Hangang', reading methods, reading attitudes, reading techniques, purposes of reading, pleasure of enlightenment, social practice.

